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윤 신 희
김 중 성
강 현 철
고 성 훈
이 세 훈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윤신희(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위탁연구자

연구책임 : 김종성(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 강현철(경기대학교, 교수)

고성훈(경기대학교, 교수)

이세훈(경기대학교, 전문연구원)

발행일 2022년 8월 31

저자 윤신희, 김종성, 강현철, 고성훈, 이세훈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55-8 (9337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느린학습자의 이해	9
제2절 느린학습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15
제3장 느린학습자 지원 현황 분석	27
제1절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29
제2절 해외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36
제3절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38
제4장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실태 및 욕구조사	41
제1절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및 시사점	43
제2절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및 시사점	55

제5장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 제안	75
제1절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76
제2절 교육지원	78
제3절 취업지원	80
제4절 건강·복지·상담 지원	83
제5절 지원체계 구축	85
참고문헌	87
부록	95
Abstract	107

표 목차

<표 차례>

[표 2-1]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13
[표 2-2] 느린 학습자에 관한 선행연구	18
[표 2-3]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선행연구	24
[표 3-1]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30
[표 3-2]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내용 분석	30
[표 3-3] 일본 도도부현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기준	36
[표 3-4] 고양시 청년담당관 업무	38
[표 4-1] 응답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표 4-2]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자율문항 단어 빈도분석	53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	68
[표 4-4] 상관관계 분석	69
[표 4-5] 경로분석	70
[표 4-6] 이중매개효과 분석	71
[표 5-1] 중장기 정책 목표 수립과 방향 설정 관련 전문가 종합의견	77
[표 5-2] 취업·노동·일자리 지원 측면전문가 종합의견	79
[표 5-3] 교육지원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81
[표 5-4] 건강·복지·상담 지원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84
[표 5-5] 지원체계 구축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86

그림 목차

[그림 1-1] 느린학습자 관련 최근 언론보도	4
[그림 1-2] 과업 흐름도	5
[그림 1-3] 중간보고 겸 토론회 전경(2022년 7월 26일)	6
[그림 2-1] 우리 주변의 느린학습자 현황	9
[그림 2-2] 지능(IQ) 정규분포 곡선	10
[그림 3-1] 서울특별시 교육부서 조직도	31
[그림 3-2] 서울학습도움센터	32
[그림 4-1] 응답자와 응답대상자와의 관계(단위 %)	44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단위 %)	45
[그림 4-3] 응답자의 연령(단위 %)	45
[그림 4-4]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단위 %)	46
[그림 4-5]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단위 %)	47
[그림 4-6] 느린학습자 자녀의 학습지원이 필요한 시간(단위 %)	47
[그림 4-7]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48
[그림 4-8]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48
[그림 4-9]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우선순위(중복 응답 5개, 단위 %)	49
[그림 4-10]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중복응답, 단위 %)	50
[그림 4-11]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단위 %)	50
[그림 4-12] 느린학습자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51
[그림 4-13] 느린학습자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51
[그림 4-14] 느린학습자의 장래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것	52
[그림 4-16] 연구모형	64
[그림 5-1] 비전 및 추진과제	76
[그림 5-2] 고양시 느린학습자 거버넌스 체계	85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재 느린학습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5%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1%인 등록장애인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느린학습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21년 11월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음

□ 연구 목적

- 고양시 차원에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방법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사용함

□ 연구 내용



3.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응답결과

-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252명의 표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직상태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조사 내용 중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지원서비스는 '언어사고력 향상'과 '인지사고력 향상', '기초학습', '직업능력 향상'로 나타남
-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는데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30~50만원으로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소득액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느린학습자 및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교육, 사회, 상담, 맞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

4.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분석결과 및 시사점

- 고양시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 청년층을 표본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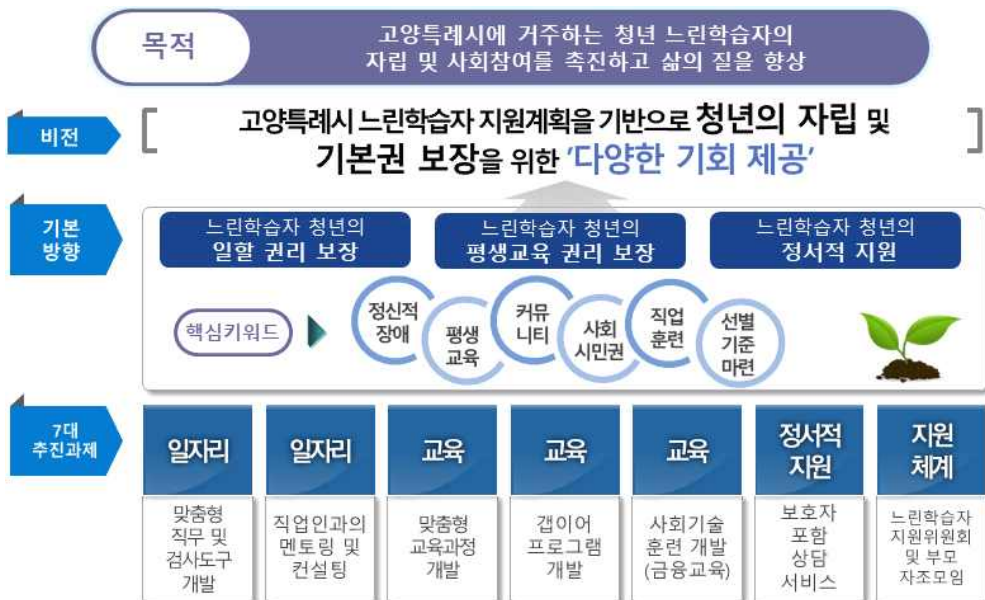
검증 및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 함. 검증결과 모든 가설은 지지가 되었고,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공감적 행위는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적 행위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되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음

5.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 제안

□ 7대 추진과제

- 추진과제는 맞춤형 직무 및 검사도구 개발, 직업인과의 멘토링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갭이어 프로그램 개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포함 상담서비스,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 및 부모 자조모임으로 설정

□ 비전,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낮은 지능지수 때문에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경우에 따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이 주목받고 있다.¹⁾ IQ가 70~85 사이에 해당하고 전체 인구의 약 13.5% 정도의 인구분포를 보이는 이들을 ‘경계선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느린 학습자 아동 및 청소년은 사회기술, 언어, 학습, 신체운동 등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일반 아동에 비하여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우울감, 주의력 집중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²⁾

현재 느린학습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5%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1%인 등록 장애인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³⁾ 또한 판단력과 분별력, 암기력, 인지력 등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청소년기 학습능력 부진, 상황판단능력 부족, 대인기피,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처럼 경계성 지능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 추세로 다양한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나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현황 및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⁴⁾ 이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뉴스포스트(2022),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③ 느린학습자, 온전한 사회구성원 되려면.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dxno=96483>. (접속일 2022.08.09.)

2) Lokanadha, Ramar & Kusuma(2013),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청소년을 위한) 느린학습자의 심리와 교육 [Slow learning children]. (박현숙 역). 학지사; 류은진·옥정(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10(2), 217-

3) 느린학습자서민회(20210), 느린학습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교사용), p.5.

4) 홍미영(2020).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p.4.

[그림 1-1] 느린학습자 관련 최근 언론보도



<자료> SBS뉴스(2022), 장애인은 아닌 '경계선 지능'..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4065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최근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의 복지 사각지대와 삶의 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는 법령이 보호하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룹홈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 하여 부모(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습 기회 제약으로 인해 직업 수행 능력이 매우 낮아 성년이 된 후에도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 후에도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연계와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⁵⁾

2. 연구 목적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느린학습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21년 11월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고양시 차원에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⁵⁾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 기초연구보고 공론장 자료집, p.9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흐름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현재 여전히 개념적 정의가 모호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법적 근거,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양시 청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조사를 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교육기관 또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간보고 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단계에서는 문헌연구, 현황 및 사례분석, 실태 및 욕구조사,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 계획안을 수립한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최종보고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의견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양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림 1-2] 과업 흐름도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연구, 실증연구, 전문가 자문, 워드클라우드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협의회 방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이중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3] 중간보고 겸 토론회 전경(2022년 7월 26일)



연구내용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 선행연구 등 이론적 고찰
 고양시 느린학습자 지원현황 및 사례조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보호자 설문조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 제시

전문가 토론회



실무진 협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느린학습자의 이해

제2절 느린학습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절 느린학습자의 이해

1. 느린학습자의 개념

느린학습자란, 경계선 지능의 아동으로서 학습장애의 기준에 해당 하지 않으면서,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다.⁶⁾ 경계선 지능과 느린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용어이며, 엄밀히 따지자면 경계선 지능이 느린학습자라는 큰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뿐만 아니라 또래 혹은 가지고 있는 지능에 비해 문해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전체를 의미한다.⁷⁾ 일부 학자 중에는 느린학습자를 경계선 지적장애로 칭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기능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으로도 명명하고 있다.⁸⁾ 우리나라 느린학습자는 전국에 걸쳐 약 80만 명으로 학령기 학생 중 한 학급당 3명꼴이며,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1] 우리 주변의 느린학습자 현황



6)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 기초연구보고 공론장 자료집,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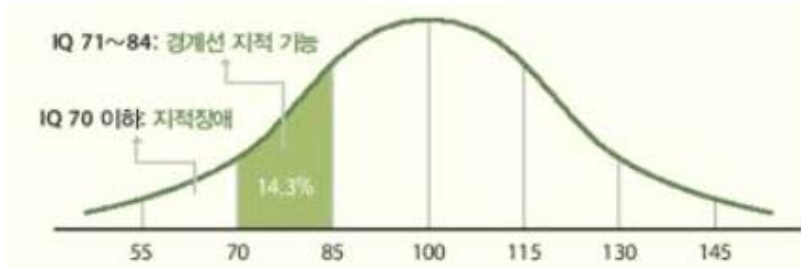
7) 교육부 공식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eblog/221934336027>.

8) 정하나 외(202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사회성』, 이담북스.

〈자료〉 이음발달지원센터 <http://www.ieumdsco.kr/program.html>.

경계선 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에 대한 개념은 합의된 용어가 없이 ‘경계선급 지능’, ‘학습지진’, ‘느린 학습자’, ‘저성취자’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에 속하는 지적 기능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기능’, ‘정신지체는 아니지만, 장애와 정상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지적 기능’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⁹⁾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는 ‘BIF’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가 40% 이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SD과 -2SD 사이인 IQ 70~85 사이에 속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분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¹⁰⁾ 웨슬러(Wechsler) 지능검사¹¹⁾에 의하면 IQ 지능검사 결과 70~79사이의 지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¹²⁾ 또한 몇몇의 다른 국가들은 IQ 75까지 지적장애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능지수는 단순 수치일 뿐 느린학습자를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³⁾

[그림 2-2] 지능(IQ) 정규분포 곡선



〈자료〉 정하나 외(202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사회성』, 이담북스, p.13.

- 9) 김태은(2020),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20.
- 10)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16.
- 11) 웨슬러 아동지능검사는 국내에서 4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11년에 웨슬러 아동지능검사의 4번째 개정판(K-WISC-IV)을 표준화하여 발표하였으며, K-WISC-IV는 이론적 토대 업데이트, 발달적 적합성 증가, 심리측정적 속성 향상, 검사자 편익성 증가라는 목표를 두고 개정되었다.(박금주 · 오상우 · 김창택, 2011; 이준석, 2016)
- 12) 장세희(2018),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0(2), 89-106.
- 13) 조안나박윤정(2022), 『느린 학습자의 공부』, 이담북스, p.17.

넓게 보면 경도지적장애(IQ 55-69) 학생들도 느린학습자에 포함할 수 있고, 경미한 자폐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도 자체스펙트럼장애도 느린학습자에 포함할 수 있으나,¹⁴⁾ 느린학습자를 장애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느린학습자 인권운동단체인 느린학습자시민회¹⁵⁾에서는 경계선 지능(71-84 DSM-IV 기준)과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천천히 배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느린학습자를 정의하고 있다.¹⁶⁾

2. 느린학습자의 특성

1) 인지적 특성

지적기능(IQ)은 개인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인 것만큼,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는 느린학습자는 다른 학생들과 인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느린학습자는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인지능력이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¹⁷⁾ 특히 느린학습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배우는 것이 느려 매년 학습 지체가 누적된다. 주의 집중력이 짧고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과정의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읽고 해독해야 하는 시험은 성적이 낮은 편이지만 실습이나 체험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학업성취가 가능하다.¹⁸⁾

14) 박찬선(2021),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5)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보육, 돌봄, 교육, 복지, 노동권 등 느린학습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과 정책자원을 실천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자립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권익옹호, 사회통합지원사업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정책 제안, 공론화, 연구, 출판, 미디어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노원신문, 2021.4.16).

16) 느린학습자시민회(2021), 느린학습자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교사용), p.5.

17) 정희정·이재연(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변관석·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pp.12-13.

18) 느린학습자시민회(2021), 느린학습자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교사용), p.6.

2) 사회·정서적 특성

느린학습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므로 자존감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¹⁹⁾ 특히 다른학생들과 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래에 비해 미숙하고 대화할 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자주 맥락에서 벗어나 친구를 사귀어도 우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춘기가 되면 어른 대우를 받기 원하지만 또래보다 어리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또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방어적 태도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²⁰⁾

3) 학업적 특성

느린학습자는 그 또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신의 학급 또는 그 아래 학년의 학급에서도 학습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절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²¹⁾ 보통지능을 지닌 학생들은 일반교육을 받고 배운 개념이나 전략을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반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기계적인 암기는 가능하지만 깊이 있게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읽기·쓰기·셈하기만큼 중요한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표현하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습 동기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잦은 실패와 좌절로 시도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는 특성이 있다.²²⁾

19)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17.

20) 느린학습자시민회(2021), 느린학습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교사용), p.7.

21) 김진아(2017).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장애연구 14(3), 157-184;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19.

이러한 학업적 특성은 높은 사회적 위축감으로 이어져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고립 및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³⁾ 이는 나이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실패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심각한 부적응은 결국 정학 또는 퇴학,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임신, 약물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어,²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²⁵⁾

[표 2-1]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영유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지기, 잡기, 점프, 걷기, 뛰기 등의 대근육 운동기술에서 어색함을 보이며, 단추 채우기, 지퍼 잠그기, 필기구 잡기, 가위질, 풀칠 등의 소근육 운동기술이 서투름 • 음성학적 인식, 변별, 청각적 차례 및 혼합 포함과 같은 청각 차례에 어려움을 보이며, 교사나 부모가 부르고 지시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여 멍하게 있거나 엉뚱한 행동을 함 • 시각변별, 기억, 차례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게 네모, 세모 등의 도형을 따라 그리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미술활동을 할 때도 또래에 비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현함 • 타인의 언어이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임 • 부주의하여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지며 한 가지를 끝까지 지속하거나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며, 주의력과 집중력에 기복이 있음
학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를 되풀이해서 말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함 • 청각 집중력이 떨어지며, 예를 들어 긴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짧은 이야기에만 집중력을 보임 • 수업시간에 빨리 착석하지 못하고 수업 준비를 재빠르게 하지 못함 • 시각-공간 조직에 어려움이 나타나며, 자르거나 색칠하기 같은 정교한 활동이 서투름 • 책을 읽을 때 단어나 줄을 빠뜨리거나 위치를 잊어버리고, 단어를 빼놓고 읽는 경우가 많음 • 쉽게 지치고 산만해진다.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지 못함 • 자신의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억지를 부리고 떠쓰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림 • 단체나 가족 활동에서 관계상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래 간 타협하기, 협력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등이 어려움

22) 인천투데이(2020.11.9.), 경계선 지능 아동, 느린 학습자가 뭐가요?.

23) Chauhan(2011). Slow learners: Their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1(8), 279-289; 김동일 외(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1), 25-53.

24)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25) 김동일 외(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1), 25-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해 정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함 • 다른 아이들을 방해함 • 친구나 어른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함 • 또래에 비해 미성숙하고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며, 심지어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친숙한 단어도 잘 구사하지 못함 • 발음이 부정확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함 • 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부탁하기, 주문하기, 의견 말하기, 질문하기 등을 어려워함 • 단어와 문장을 왜곡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함 • 기본 읽기, 쓰기, 셈하기 성취 수준이 저조하다. 교과서 읽기, 받아쓰기, 연산 등에 있어서 또래보다 성취가 낮아 보충학습이 필요함 • 눈치 없는 행동을 함 • 또래에게 인기가 없음 •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남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된 학업실패로 인지적 무능감과 부정적 자기효능감 등 자아개념이 가장 문제가 됨 •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좌절하는 아동이 많고, 집중력이나 충동성의 문제가 동반될 시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함 • 이 시기에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슴이나 어깨가 아프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등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런 상황으로 병원을 수시로 다니게 되나 병원 진료 시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궤병 부리는 아이로 낙인찍히기도 함 • 가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갈망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면 망상, 환청 등이 나타나기도 함
성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직업과 사회적 부적응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됨 • 청소년기에 학업과정을 안정적으로 성취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주변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부족하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음에 따라,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2차적 부적응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자료> 박찬산·장세희(2018). 경제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pp. 49-58;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18목적

제2절 느린학습자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느린학습자 관련 선행연구

1) 느린학습자 읽기를 위한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

하정숙·김자경(2017)의 연구²⁶⁾는 느린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읽기 학습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J시에 소재하고 있는 J와 C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0명의 느린 학습자를 선별하였다. 이들에게 읽기 학습적 중재로 읽기 기초학습 프로그램, 정서적 중재로 학습 동기 프로그램, 사회적 중재로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각 중재의 효과와 그들 사이의 관계는 사전·사후 t검정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첫째, 읽기 학습적 중재가 느린 학습자의 음운 인식과 단어 재인을 크게 향상시켰다. 둘째, 정서적 중재가 느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향상 시켰다. 셋째, 사회적 중재가 느린 학습자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켰고, 넷째, 느린 학습자의 음운 인식, 단어 재인, 학습 동기, 자아 존중감은 각 중재를 적용하기 전보다 적용 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느린학습자 사회성 발달에 관한 독서치료 연구

느린 학습자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여, 그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치료나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누적된 발달의 결손이 초기에는 기능이 우수하였던 느린학습자들을 후천적으로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느린 학습자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지·정서·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결손과 관련되어 학습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에게

26) 하정숙·김자경(2017). “느린 학습자의 읽기를 위한 다각적인 중재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136-155.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독서치료가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장세희(2018)연구²⁷⁾의 목적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느린 학습자들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느린 학습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장세희(2018)연구²⁸⁾는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인지적 수준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2016년 4월부터 35회기 동안 느린 학습자로 선별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성 발달의 사전사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와 t-검증, 그리고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서치료는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독서치료 이전에 비해 사후검사결과 8.6점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담임교사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느끼는 아동들의 사후 행동변화 또한 긍정적이었다. 느린 학습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평균 상 집단의 사회성 점수가 평균 하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차별화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했던 느린 학습자에게 주목한 연구로서 느린 학습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느린학습자 놀이치료에 관한 사례연구

류은진·옥정(2021)의 연구²⁹⁾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부족으로 야기된 느린 학

27) 장세희(2018).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0(2), 89-106.

28) 장세희(2018).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0(2), 89-106.

29) 류은진·옥정(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10(2), 217-242.

습자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발달은 부모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가족체계, 사회체계, 더 나아가 거시적인 문화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동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³⁰⁾. 또한 아동과 아동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 대인관계, 심리내적, 거시체계가 포함된 다차원 상호작용 체계맥락에서 존재한다. 즉 생태학적 접근의 중재는 현재의 아동 문제를 개념화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이 모든 체계를 고려하고자 하는 이론이다³¹⁾. 아동을 둘러싼 구성요소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이므로 하나의 요소라도 바뀐다면 체계 내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느 지점에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의 각 부분이 퍼져 있다고 본다. 생태학적 접근의 중재는 아동의 취약한 자원을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및 발달영역을 개선하는 중재 방법이자 한부모 가정에 대해 부모역할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³²⁾.

류은진·옥정(2021)연구³³⁾의 목적은 한 부모 가정의 느린 학습자 아동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애착과 문제행동 및 발달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아동을 둘러싼 가정, 치료자를 포함한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기반에서, 총 21회기의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가 이루어졌다. 영역별 중재는 문제행동, 인지 및 학습, 사회성 영역에서 대상아동의 특성에 맞춘 개입 전략을 사례회의를 통해 공유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의 교사가 진행하도록 도왔다.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혼용하였는데, 양적 측정도구로 모아 상호작용 척도, 아동문제행동 척도, 기초 학력성

30) O'Connor, K. J., & Ammen, S. (2012). Play therapy treatment planning and interventions: The ecosystemic model and workbook. Academic Press.

31) O'Connor, K. J., & Ammen, S. (2012). Play therapy treatment planning and interventions: The ecosystemic model and workbook. Academic Press.

32) 신수아(2001). “저소득층 여성가정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윤정·이시연(2007). “한부모 가족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5(1), 123-142.

33) 류은진·옥정(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10(2), 217-242.

취도, 사회성숙도 검사가 시행되었고, 질적 분석은 동적 가족화(KFD), 회기별 치료놀이 및 아동행동관찰 등을 토대로 하였다.

그 결과 대상아동은 치료놀이를 통해 양육행동에 익숙해지고 정서표현이 증가한 것이 나타났고 일상에서의 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친근함 표현도 증가하였다. 또한,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인지 및 학습과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지표가 향상되었다. 대상아동의 변화요인으로는 치료놀이를 통한 애착관계 재경험, 대상아동에 적합한 성취수준 및 훈육법 공유, 반복 연습 및 대상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역사회 체계에서 보완한 점이다³⁴⁾.

[표 2-2] 느린 학습자에 관한 선행연구

발표년도	제목	구분	기관
2022.05	느린학습자-서울시 경계선 지적장애 청소년 현황과 정신건강 이슈	학술발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	한국학습장애학회
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국내 학술지	한국발달지원학회
2021	시설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서울시동북권 NPO 지원센터 느린학습자워킹그룹
2019	느린학습자를 위한 적정도서 활용 사례와 느린학습자의 변화	학술발표	한국특수교육학회
2018	동북권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서울시동북권 NPO 지원센터 느

34) 류은진·옥정(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10(2), 217-242.

			린학습자워킹그룹
2018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내 학술지	한국독서치료학회
2017	느린 학습자의 읽기를 위한 다각적인 증재의 효과	국내 학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선행연구

1) 경계선 지능인 선별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는 정확한 방법은 표준화된 심리검사(예: 웨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아동용 카우프만 진단검사 등)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지능검사는 많은 재정적·시간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한다고 해도,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려고 할 때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적절한 진단과 개입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프로그램의 투입을 기다리는 동안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인지적 결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중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³⁵⁾ 초기의 문제적 증상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별과 진단에 소요되는 과정이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³⁶⁾.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노원경 외(2020)³⁷⁾는 빠른 개입이 요구되는 학급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교사가 일차적으로 선별(screening)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요인의 구조 및 타당도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지능의 문제, 특히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조기 선별과 개입의 중요성

35) Chauhan, S. (2011). Slow learners: their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1(8), 279-289.

36) 박현숙·최현기(2014).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이드북”.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37) 노원경·김태은·오상철·강옥려(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교육연구논총*, 41(4), 143-171.

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도구는 부족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원경 외(2020)³⁸⁾ 연구는 초등학교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하여 선행 연구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집, 분석하여 체크리스트의 영역 및 구성요인을 결정하였다.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선지적지능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언어성지능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경계선 지능임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 지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해정 외(2019) 연구³⁹⁾의 시설 종사자, 전문가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계선지적지능 아동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조기진단을 위한 비용인 약4~50만원 소요되어 의심아동에 경우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시설 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만을 검사한다면 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자립단에서의 2016년 자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보호 종료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정 외(2019)⁴⁰⁾ 연구결과에서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양육 시 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서 아동의 심리적 문제 개입의 어려움을 약 10% 호소하였다. 즉, 시설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입소 초기부터 또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경계선지적 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에서는 진단비용 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지원방

38) 노원경·김태은·오상철·강옥려(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교육연구논총, 41(4), 143-171.

39) 서해정·박현숙·이혜수(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40) 서해정·박현숙·이혜수(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해정 외(2019)⁴¹⁾ 연구결과, 시설 내 종사자들은 경계선지적기능아동에 대한 이해가 4.7%로 보통이상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배포한 경계선 지적기능아동 관련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14.1%, 없다는 응답이 85.9%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인력 부족(43.0%), 종사자 교육 부족(26.6%) 등이 주요 원인이고, 이어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은 1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인력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및 훈련 방법(그림, 동영상 등) 등이 개발되고 보급 될 필요가 있다.

3)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현재까지 진행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 진행된 연구는 1건에 불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국내 경계선 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오현숙(2001)⁴³⁾, 정문순(2004)⁴⁴⁾의 연구와 같이 미술치료를 통한 사례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정희정·이재연(2005)⁴⁵⁾, 유경·정은화·김락형(2007)⁴⁶⁾ 등이 진행한 연구와 같이 아동의 인지적·행동적 특성 및 언어 특성과 같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원경 외(2020)⁴⁷⁾, 한동욱 외(2021)⁴⁸⁾의 연구 등과 같이 경계선 지능

41) 서해정·박현숙·이혜수(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42) 변관석·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43) 오현숙(2001). “경계선지능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8(1), 197-227.

44) 정문순(2004). “미술치료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45) 정희정·이재연(2005).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 아동복지연구, 3(3), 109-124.

46) 유경·정은화·김락형(2007). “학령기 경계선지능 아동의 언어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93-209.

47) 노원경·김태은·오상철·강옥려(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교육연구논총, 41(4), 143-171.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괄목할 만하다.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경계선 지능아동과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또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실험연구와 인지 및 정서사회 분야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중재연구이다. 국내 교육현장에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공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중재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의 경우 초기 개입 및 중재에 대한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재연구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진행 될 연구에 기초자료로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허은(2022)⁴⁹⁾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의 학문적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 분야에서 체계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학문적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첫 번째 연구문제로써 기본적인 연구 동향 분석하고 두 번째 연구문제로써 중재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⁵⁰⁾.

허은(2022)⁵¹⁾의 연구 역시 선행연구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 된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중재연구들을 분석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중재 분야별 주요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허은(2022)의 연구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연구로써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배제하고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자료로써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48) 한동욱·조혜선·황순택·김지혜·홍상형(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척도의 개발”. 초등상담연구, 20(2), 153-168.

49) 허은(2022).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187-200.

50) 이정혜 (2021). “지혜성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박사학위 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류인혜(2020). “국내 경계선 지적지능 학생의 언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65-95.

변관석·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51) 허은(2022).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187-200.

4) 경계선 지능 자녀의 보호자에 대한 질적연구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Lazarus & Folkman(1991)⁵²⁾에 따르면, 대처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한계를 초과하는 개인의 내외적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인지·행동적 노력이다. 경계선 지능 자녀 어머니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한다. 재활 치료 기관 선생님들로부터 경계선 지능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자녀양육에 적용하기도 하며,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과의 유대를 통해 정보 및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자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녀가 보이는 문제를 기질적 특성으로 이해하게 되며, 자녀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된다(최말옥, 2014)⁵³⁾. 따라서 경계선 지능 자녀 어머니들이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부정적 지각을 긍정적 지각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희진·구자경(2019)의 연구⁵⁴⁾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자녀를 둔 어머니 2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자료 분석은 Clandinin & Connelly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녀들이 학습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래로부터 자녀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학습을 요구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였고, 경계선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

52) Folkman, S., & Lazarus, R. S. (1991). 10. Coping and Emotion. In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207-227). Columbia University Press.

53) 박숙자(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G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저널학회”, 20(1), 1-17.

54) 임희진·구자경(2019).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독서치료연구*, 11(1), 63-84.

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에 따라 자녀에게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거나 자녀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향후 연구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⁵⁵⁾.

[표 2-3]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선행연구

발표년도	제목	구분	기관
2022.05	경계선 지적장애 청소년의 개입과 연계방안 - 경계선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문제와 대인관계 대처방안 모색	학술발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09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국내 학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12	학령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중재 경험 탐색	국내 학술지	한국특수교육학회
2021.09	경계선 지능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한국아동복지학회
2021.06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국내 학술지	한국특수교육학회
2021.04	미숙아로 출생 후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경험	국내 학술지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02	학령기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배경지식 유무에 따른 추론 능력	국내 학술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1	학령기 경계선지능아동의 수수께끼 유머 이해 능력	국내 학술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1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행기능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국내 학술지	인지발달중재학회
2020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2020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예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55) 임희잔·구자경(2019).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독서치료연구, 11(1), 63-84.

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국내 학술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게임 중재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인지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국내학술지	인지발달장애학회
2020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작업기억 특성 분석	국내학술지	학습장애학회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 학술지	한국독서치료학회
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자립지원체계 연구: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 따른 비단어 의미 추론 특성	국내 학술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제 3 장 느린학습자 지원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제2절 국외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현황

제3절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제4절 소결

제절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1.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1) 법령 현황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2014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에 관한 발의,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도 일부 개정되었다⁵⁶⁾.

2) 조례 현황

국내에는 2022년 8월 기준 3개 광역단체와 9개 기초단체에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20. 10. 05)로 이후 서울시 서초구(21.02.08), 경기도 여주시(21.04.13), 광주광역시(21.06.01), 서울시 양천구(21.07.15), 경기도 고양시(21.11.09), 서울시 서대문구(21.12.29), 서울시 구로구(21.12.30), 서울시 동대문구(21.12.30), 경기도 (22.04.21), 서울시 노원구(22.04.28), 경기도 오산시(22.05.13) 순으로 제정되었다.

조례 내용은 느린학습자(또는 경계선지능인⁵⁷⁾)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여주시,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초구, 양천구는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

56) 한국교육신문(2020.11.05.), 경계선에 선 아이들, 교육 진혹사 끝나자

57) 조례는 느린학습자로 명명한 경우와 경계선지능인으로 명명한 경우 2가지로 나누나 본 보고서에서는 느린학습자로 통일하기로 함.

영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고양시, 오산시, 서대문구 등은 조례상에 센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로구도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를 두어 느린학습자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자치단체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1]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구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10.05
	경기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2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06.01.
기초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11.09.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13.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04.13.
	서울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12.30.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2.04.2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12.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12.29.
	서울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1.02.08.
	서울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2021.07.15.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표 3-2]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내용 분석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원 센터	위원회	센터 위탁 여부	지원계획	공동 사업	담당부서
광역	서울특별시	o	x	o	3년마다	o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기도	o	x	o	5년마다	o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광주광역시	o	x	o	3년마다	o	여성가족교육국 인재육성과
기초	경기도 고양시	x	o	x	o	o	고양시 청년담당관
	경기도 오산시	x	x	x	3년마다	o	오산시 평생교육과
	경기도 여주시	o	x	o	5년마다	o	여주시 여성가족과

	서울시 구로구	o	o	o	3년마다	o	노원구 교육지원과
	서울시 노원구	o	x	o	5년마다	o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서울시 동대문구	o	x	o	5년마다	o	동대문구 교육지원과
	서울시 서대문구	x	x	x	5년마다	o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서울시 서초구	o	x	o	5년마다	o	서초구 아동청년과
	서울시 양천구	o	x	o	5년마다	o	양천구 교육지원과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

2. 국내 느린학습자 지원 조직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에서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2022년 6월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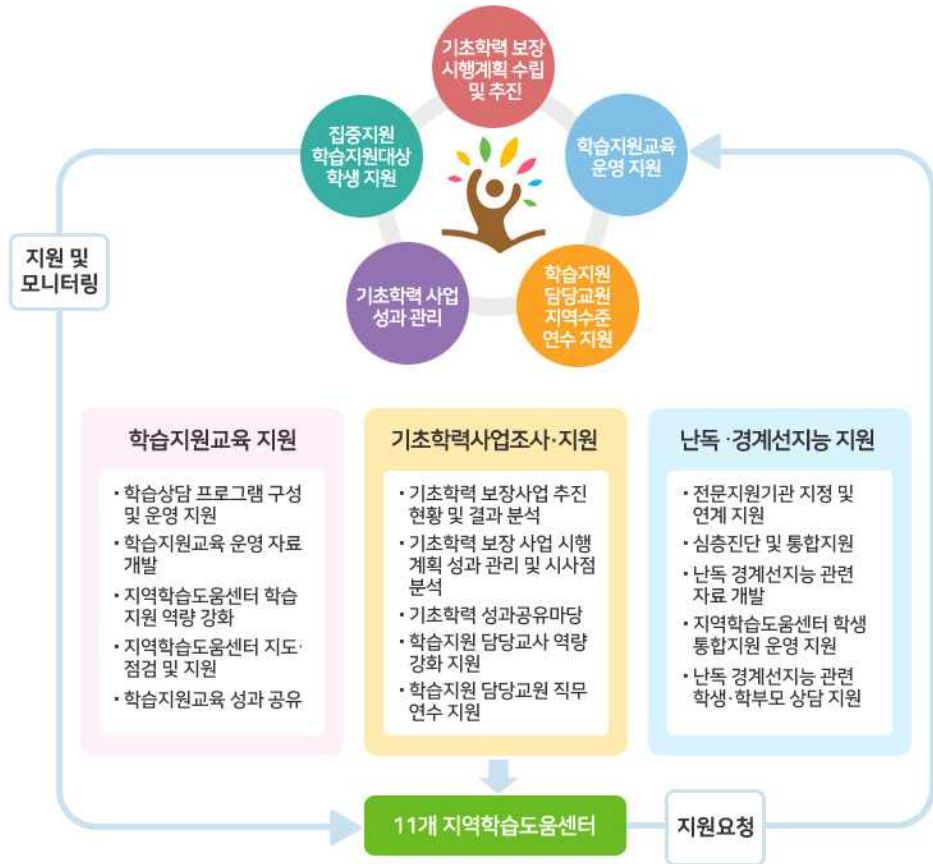
[그림 3-1] 서울특별시 교육부서 조직도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급별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각각 나누어 담당한다. 유사한 업무로 특수교육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과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느린학습자만을 위한 부서라고 볼 수 없다. 학습도움센터가 실질적인 담당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등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서울학습도움센터



(자료) 서울학습도움센터 홈페이지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찾아가는 학습상담’을 확대하여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학교에서 의뢰받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해 정서행동환경검사, 학습저해요인검사, K-WISC, 비언어성 지능검사, KOLRA 검사 등의 심층진단을 통해 부진요인을 파악하고 학생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학생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가 의뢰시 전문기관에 즉시 연계하여 심층진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기관방문,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3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충청북도

초등 기초학력 단위학교 책임 학년제를 운영하고, 4R's 중심의 초등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R's란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습능력(3R's)과 함께 초등학교 생활에의 안정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비학습적 요소로서의 관계성을 더한 개념이다. 초 1,2학년은 기초학력 3R's를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초3~6학년은 관계성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생수업 주도성 지원을 위해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한다.

이는 경계성지능, 난독증, 난산증, 읽기곤란, 기초연산곤란 등 일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Pull-Out방법의 집중교육을 통해 교실 수업에 참여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초등1~2학년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수업 중 담임교사와 함께 일반학생의 학습부진 예방 및 학습부진 보정지도를 위하여 협력 교수하는 수업 내 협력 강사를 지원한다.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초·중·고 일반고 전체에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하여, 초등 1학년 한글미해득 학생을 대상으로, 청주교대 초기문해력 석사과건 교사를 활용하여 학생 수준별 풀 아웃 방식의 초기 문해력 지도를 집중 지원하는 학교인 읽기지도집중지원학교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학생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방법과 지원 체제 마련 등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3) 충청남도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영, 온채움 선생님 운영,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보장 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 경상북도

교육부의 제공 도구를 활용한 진단검사로 초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초4~중 3학년은 3R's 및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고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를 실시하며, 전년도 학습 결과, 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의 관찰평가를 종합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초1~2학년은 기초국어, 기초수학 영역에 대해 9월 중 실시하며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여 1차~3차에 걸쳐 실시하는데, 초 4~고1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경계선 학생을 대상으로 1차는 5월에, 2차는 9월에, 3차는 11월에 각각 실시한다.

5) 전라북도

학부모 상담을 통한 가정의 돌봄을 확인하고, 학습저해요인과 학습유형 검사등을 통해 비학습요인을 진단하고, 읽기곤란(난독), 경계선지능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진단을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합적 원인 해소를 위해 학교 안 자존감·관계성 회복 프로그램등의 운영과 전북대병원 언어재활 프로그램, 심리·정서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의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6) 전라남도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의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과 연계하여 학교별 책임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

다. 기초학력 자율진단 및 콘텐츠를 지원하고, 학습적·비학습적 부진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의 학생,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중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의 특성에 맞는 1:1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강사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기초 학력 선도·시범학교도 운영한다. 또한 학교급별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해 방학 중 기초학력 향상 캠프 운영도 제시하고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를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난독 및 읽기 곤란, 난산 및 기초수학, 인지(경계선 지능), 다문화, 탈북, 정서행동(ADHD포함), 복지대상(취약계층), 자기주도학습의 요인에 따른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지원시스템 기초학력 SOS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원도 실시한다.

제2절 국외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1. 일본

일본은 2005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 시행된 특별 지원교육제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일환으로 발달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에 경계선 지능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도도부현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며 카나가와현의 경우 최대 지능지수 91까지 발달장애아동에 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3] 일본 도도부현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기준

도도부현	IQ 상한	비고
시즈오카현	89	
홋카이도	-	대상연령은 취학전 후, 지적능력이 경계선 이상의 광범성 발달장애 등을 가진 자로 생활상의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미야기현	79	
카나가와현	91	경계선 지능, 자폐증 진단 등
토야마현	80	지적 발달의 편차가 크고 적응상 문제가 명확할 경우 상한치 5+
기후현	85	
미에현	79	
효고현	-	발달장애로 진단 받거나 자타 의사 교환 및 환경 적응이 곤란하여 요육 및 일상생활상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와카야마현	85	
도쿠시마현	80	
나가사키현	79	
구마모토현	84	

자료: 静岡県発達障害者支援体制整備検討委員会(2016)

2. 미국

미국도 사회보장국에서 지능지수 70이하를 지적장애로 판단하나 경계선지능 판정 과정에서 인지능력만 및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판정하고 있다. 2017년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신경발달장애’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장애 등록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등록 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 변화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자와 달리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험, 입시, 평가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GED Accommodation Request Form’을 활용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휴식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⁵⁸⁾

⁵⁸⁾ 김지연, 김승경, 오육찬, 정소연(2021),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절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조직 현황

1.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고양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일생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1년 11월 9일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청년 느린학습자’,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을 정의하고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 지원 사업, 공동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직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책임부서는 청년담당관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조례에서는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 3-4] 고양시 청년담당관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 01	청년담당관 업무 총괄
담당자 02	청년정책 업무 총괄
담당자 03	청년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 청년정책위원회 등
담당자 04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지원, 청년정책 아카데미, 청년정책사업원장대, 내일 꿈 제 작소 건립공사 추진 등
담당자 05	서무, 예산, 회계, 청년지원 시책사업 추진(청년 디지털교육공간 운영), 청년 복지·금융 지원정책 발굴
담당자 06	청년정책소통간담회, 청년정책 시책사업 추진[청년 정책 공모사업 추진, 대학일 자리센터 지원사업(한국항공대)], 고양청년창업재정지원프로그램,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발굴
담당자 07	청년지원팀 업무 총괄 청년지원공간(청취다방) 운영 총괄
담당자 0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자 09	청년주거금융(전·월세)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신규2유형)
담당자 10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청년기본소득, 청년지원공간 운영 지원
담당자 11	청년지원공간 운영(기획담당): 연간계획 수립, 사업결과보고, 인적자원관리, 취

	창업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12	청년지원공간 운영(홍보담당):사업 및 공간 홍보, 홍보기획 및 제작, 홈페이지 관리,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13	청년지원공간 운영(회계담당) : 사업 예산 관리,사업비 지출,구매 및 비품관리, 계약관리,상시프로그램 운영,청년 면접장장지원 사업
담당자 14	청년지원공간 운영(공간담당) : 공간대관 및 시설물 관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상시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 청취디방

자료: 고양시홈페이지

제 4 장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실태 및 욕구조사

제1절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실증적 연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절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응답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는 총 252명으로 ‘남성(42.1%)’보다는 ‘여성(57.9%)’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만 18세~만 22세(59.9%)’가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57.9%)’, 재직기간은 ‘무직(50%)’,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38.9%)’, 평균소득은 ‘소득 없음(52.8%)’인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응답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 응답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구분2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06명	42.1%
	여성	146명	57.9%
연령	만 18세 ~ 만 22세	151명	59.9%
	만 23세 ~ 만 26세	50명	19.8%
	만 27세 ~ 만 31세	23명	9.1%
	만 32세 ~ 만 36세	16명	6.3%
	만 37세 ~ 만 39세	12명	4.8%
종교	기독교	63명	25.0%
	천주교	23명	9.1%
	불교	20명	7.9%
	무교	146명	57.9%
재직기간	01 ~ 04년	71명	28.2%
	05 ~ 09년	54명	21.4%
	10 ~ 14년	1명	0.4%
	무직	126명	50%
학력	초등학교 재학	12명	4.8%
	중학교 재학	4명	1.6%
	고등학교 재학	94명	37.3%
	고등학교 졸업	98명	38.9%
	2년제 대학교 졸업	25명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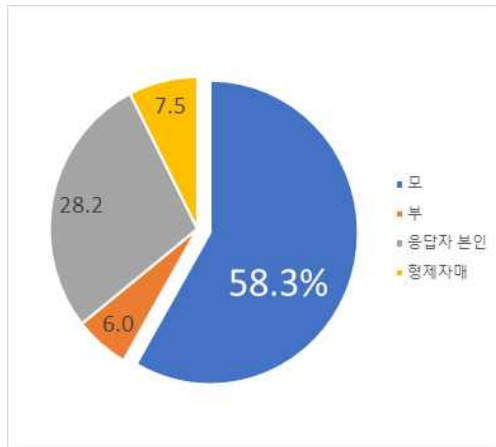
	4년제 대학교 졸업	19명	7.5%
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100만원	12명	4.8%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1명	12.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명	16.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1명	8.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9명	3.6%
	400만원 이상	4명	1.6%
	소득 없음	133명	52.8%
거주지	고양시	252명	100%

2. 욕구 및 수요조사 결과

1) 응답자와 응답대상자와의 관계

응답자는 총 252명으로 응답자는 ‘어머니’ 174명(58.3%), ‘응답자 본인’ 71명(28.2%), ‘형제자매’ 19명(7.5%), ‘아버지’ 15명(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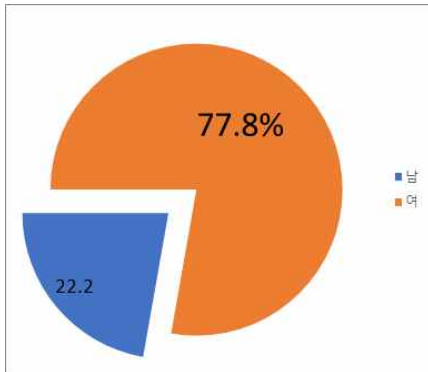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자와 응답대상자와의 관계(단위 %)



2)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명(77.8%), ‘남성’이 56명(22.2%)으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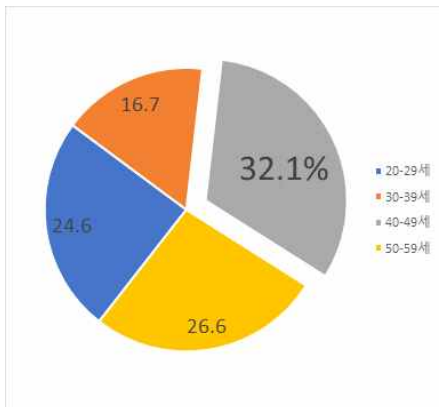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단위 %)



3)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은 ‘40-49세’ 81명(32.1%), ‘50-59세’ 67명(26.6%), ‘20-29세’ 62명(24.6%), ‘30-39세’ 42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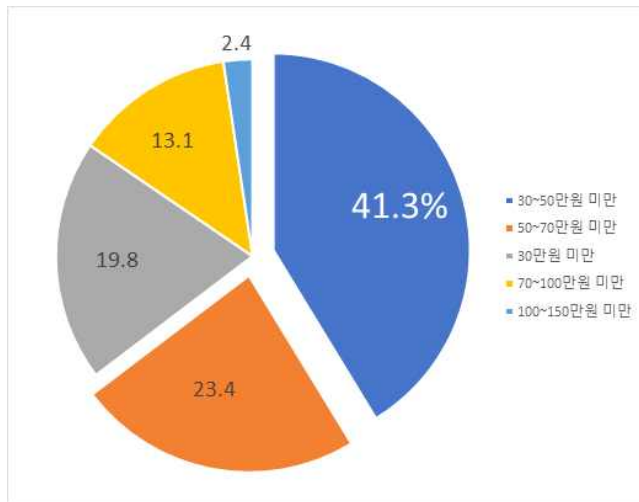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의 연령(단위 %)



4)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30~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총 104명(41.3%)이었다. 이어서 ‘50~70만원’ 59명(23.4%), ‘30만원 미만’ 50명(19.8%), ‘70~100만원 미만’ 33명(13.1%), ‘100~150만원 미만’ 6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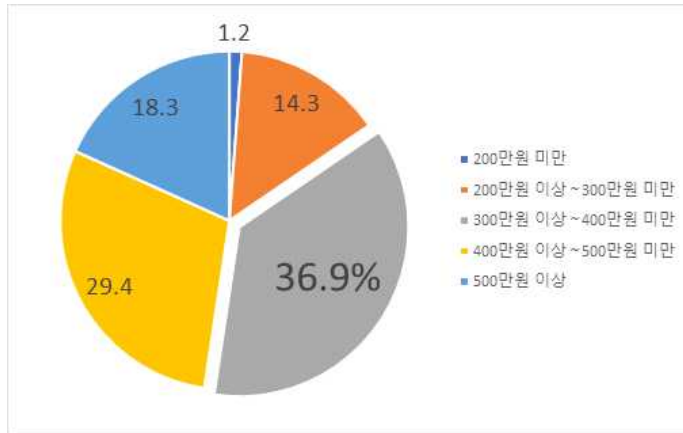
[그림 4-4]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단위 %)



5)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평균 총 소득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93명(3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4명(29.4%), ‘500만원 이상’ 46명(18.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6명(14.3%), ‘200만원 미만’ 3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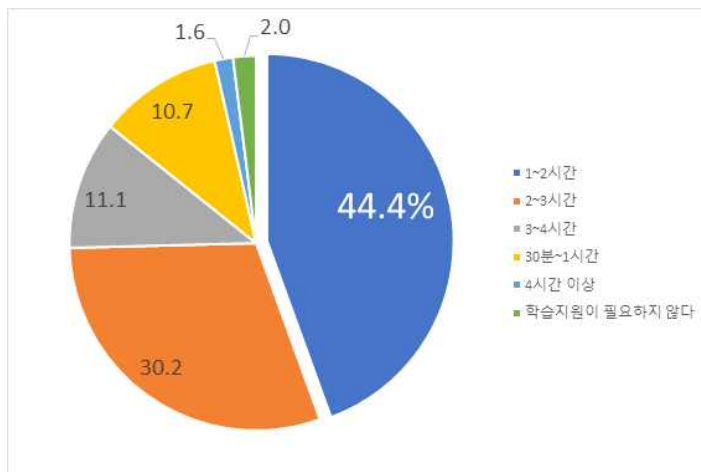
[그림 4-5]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단위 %)



6) 느린학습자 자녀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시간

느린학습자 자녀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 ‘1~2시간’이 112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 76명(30.2%), ‘3~4시간’ 28명(11.1%), ‘학습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5명(2%), ‘4시간 이상’ 4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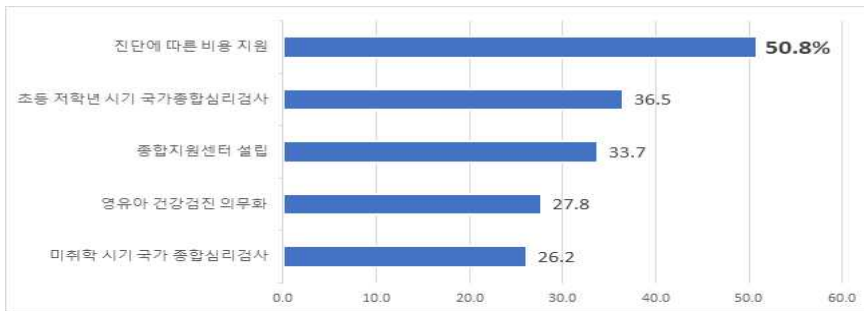
[그림 4-6] 느린학습자 자녀의 학습지원이 필요한 시간(단위 %)



7)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는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단에 따른 비용 지원’ 128명(50.8%), ‘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종합심리검사’ 92명(36.5%), ‘종합지원센터 건립’ 85명(33.7%),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70명(27.8%), ‘미취학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 66명(26.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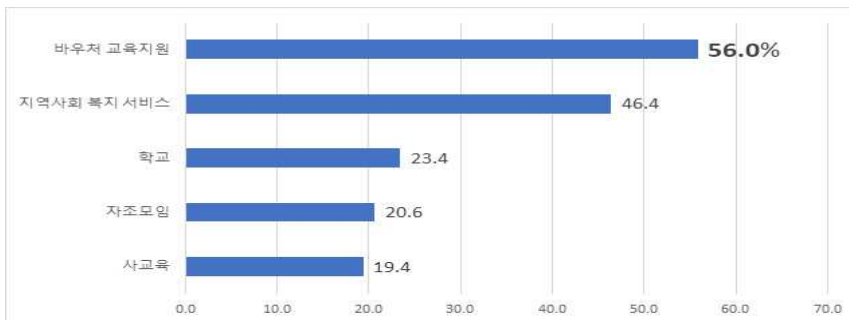
[그림 4-7]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8)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 서비스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교육지원’ 141명(56.0%),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117명(46.4%), ‘학교’ 59명(23.4%), ‘자조모임’ 52명(20.6%), ‘사교육’ 49명(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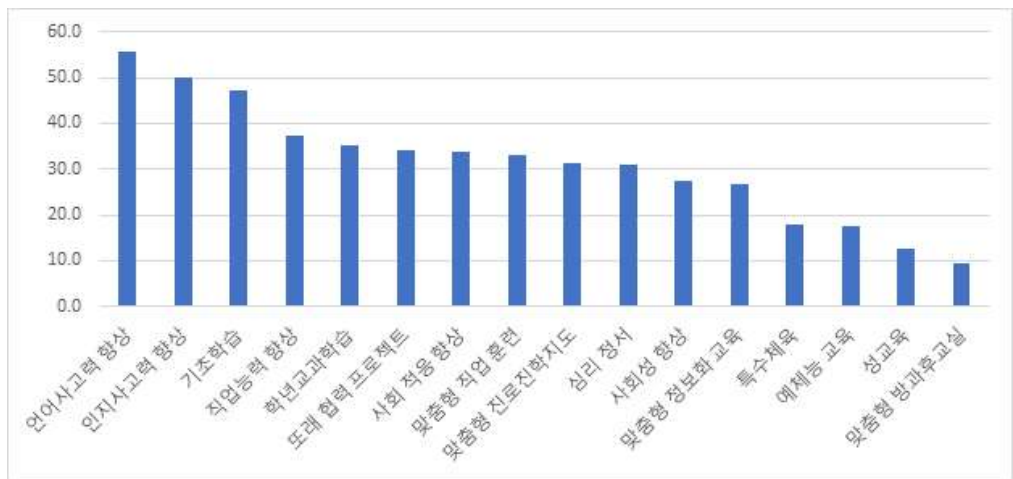
[그림 4-8]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9)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우선순위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우선순위는 ‘언어사고력 향상’ 140명 (55.6%), ‘인지사고력 향상’ 126명(50.0%), ‘기초학습’ 119명(47.2%), ‘직업능력 향상’ 94명(37.3%), ‘학년교과학습’ 89명(35.3%), ‘또래 협력 프로젝트’ 86명(34.1%), ‘사회적응 향상’ 85명(33.7%), ‘맞춤형 직업 훈련’ 83명(32.9%),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79명 (31.3%), ‘심리 정서’ 78명(31.0%), ‘사회성 향상’ 69명(27.4%), ‘맞춤형 정보화 교육’ 67명(26.6%), ‘특수체육’ 45명(17.9%), ‘예체능 교육’ 44명(17.5%), ‘성교육’ 32명 (12.7%), ‘맞춤형 방과 후 교실’ 24명(9.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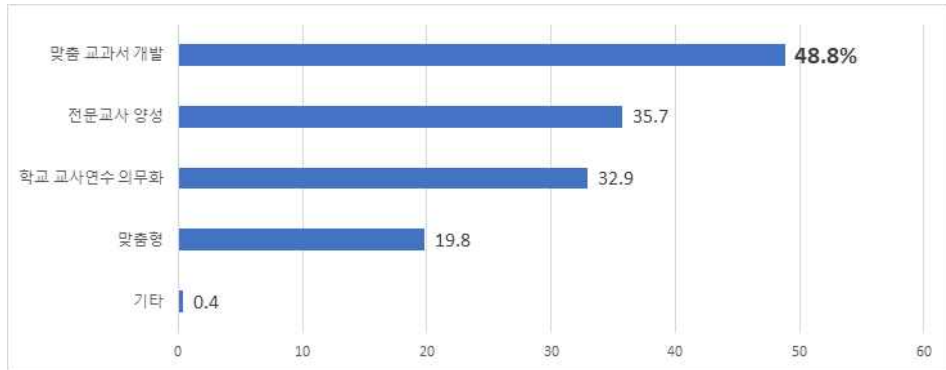
[그림 4-9]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우선순위(중복 응답 5개, 단위 %)



10)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은 ‘맞춤 교과서 개발’이 123명(48.8%)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전문교사 양성’ 90명(35.7%), ‘학교 교사연수 의무화’ 83명(32.9%), ‘맞춤형’ 50명(19.8%), ‘기타’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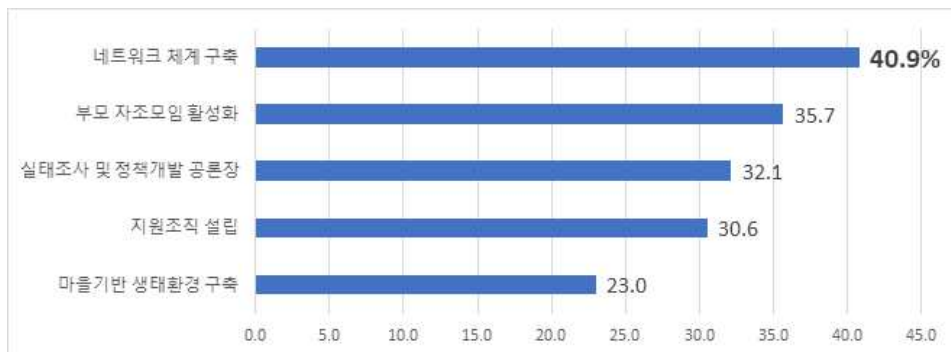
[그림 4-10]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중복응답, 단위 %)



11)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103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90명(35.7%),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공론장’ 81명(32.1%), ‘지원조직 설립’ 77명(30.6%), ‘마을기반 생태환경 구축’ 58명(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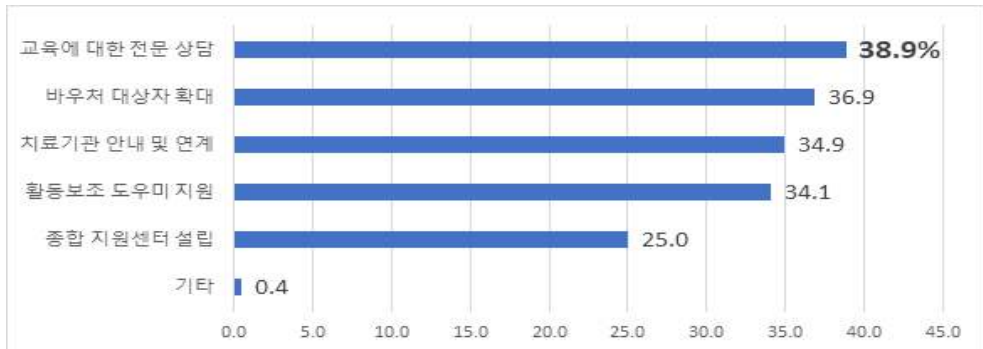


12) 느린학습자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느린학습자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교육에 대한 전

문 상담' 98명(38.9%), '바우처 대상자 확대' 63명(36.9%),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88명(34.9%),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86명(34.1%), '종합 지원센터 설립' 63명(25.0%), '기타' 1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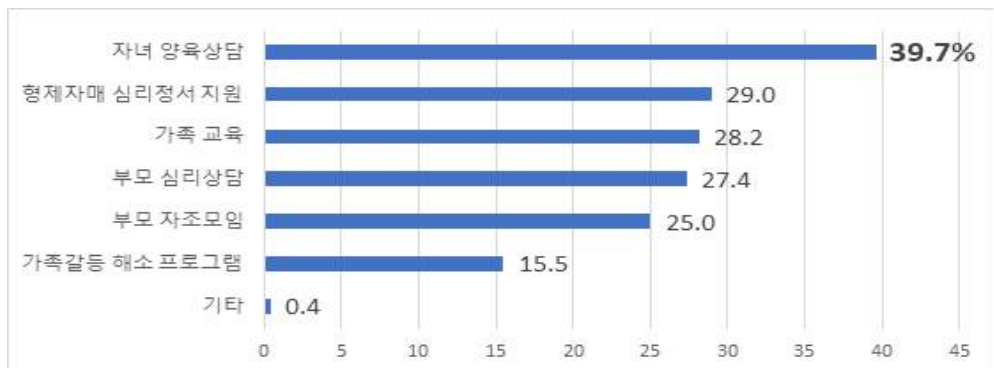
[그림 4-12] 느린학습자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13) 느린학습자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느린학습자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자녀 양육상담'이 100명 (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 심리정서 지원' 73명(29.0%), '가족 교육' 71명 (28.2%), '부모 심리상담' 69명(27.4%), '부모 자조모임' 63명(25.0%), '가족갈등 해소 프로그램' 39명(15.5%), '기타' 1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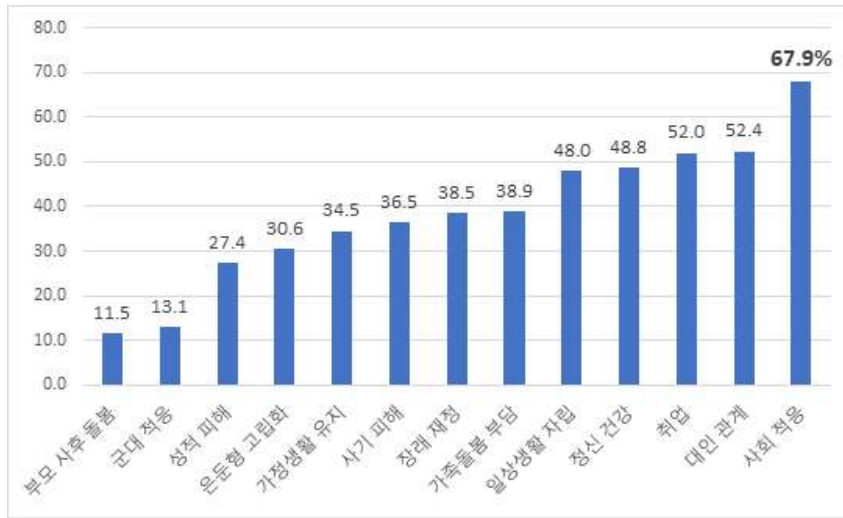
[그림 4-13] 느린학습자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14) 느린학습자의 장래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것

느린학습자의 장래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회 적응’ 171명(67.9%), ‘대인 관계’ 132명(52.4%), ‘취업’ 131명(52.0%), ‘정신 건강’ 123명(48.8%), ‘일상생활 자립’ 121명(48.0%), ‘가족돌봄 부담’ 98명(38.9%), ‘장래 재정’ 97명(38.5%), ‘사기 피해’ 92명(36.5%), ‘가정생활 유지’ 87명(34.5%), ‘은둔형 고립화’ 77명(30.6%), ‘성적 피해’ 69명(27.4%), ‘군대 적응’ 33명(13.1%), ‘부모 사후 돌봄’ 29명(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느린학습자의 장래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것



15)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254명 중 184명이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한 텍스트분석은 다음과 같다. ‘지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이라는 단어의

언급도 많았는데 이는 ‘지원’과 함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상담’, ‘전문’, ‘맞춤’, ‘확대’, ‘향상’, ‘기관’, ‘치료’등의 단어가 나타나 이와 관련된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4-2]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자원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자음문항 단어 빈도분석

단어	빈도	단어	빈도
지원	55	맞춤	12
교육	33	확대	12
사회	23	향상	10
상담	15	기관	9
전문	13	치료	8

[그림 4-15]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자원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자음문항 워드클라우드



3. 시사점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직상태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 내용 중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 ‘언어사고력 향상’과 ‘인지사고력 향상’, ‘기초학습’, ‘직업능력 향상’이 있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느린학습자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는데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30~50만원으로 느린학습자의 학습지원에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소득액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조사결과에도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 서비스에 ‘바우처 교육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느린학습자 및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교육, 사회, 상담, 맞춤 등 다양한 키워드 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지역거점인 센터의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상담이 이뤄질 수 있으며, 느린학습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실증적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실증적 연구

1) 이론적 배경

(1) 공감(Compassion)

공감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미시건 대학의 Dutton교수와 그의 동료들을 중심으로 긍정조직학과(POS)가 결성되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들은 공감이라는 감정이 타인의 고통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타인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행위(Acts)로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⁵⁹⁾.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고객들을 접하고 공감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고통의 감정에 반응하며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인 공감을 제공한다. 고통(suffering)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공감은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복지사들이 서로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행위(Acts)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⁶⁰⁾.

공감을 경험한 조직 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 갖게 되고⁶¹⁾,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퍼트리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⁶²⁾.

⁵⁹⁾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Frost, P. J., Dutton, J. E., Worline, M. C., & Wilson, A. (2000). Narratives of compassion in organizations. *Emotion in organizations*, 2, 25-45.

⁶⁰⁾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⁶¹⁾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고통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감정인 공감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체성 역시 긍정적인 성격을 띄게 되어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PWRI)이 공감을 통하여 형성되게 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동료들이나 선후배 간에 공감을 경험한 후 형성된 긍정적 업무 관련 정체성(PWRI)은 업무에 관련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⁶³⁾.

Lilius et al.(2008)⁶⁴⁾의 연구에서도 주장했듯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조직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몰입을 하게 되고, 더 조직에 애착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조직 내에서 고통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공감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은 긍정적 정체성(POI)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보이게 되어 결국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⁶⁵⁾.

조직 내에서 공감을 경험하는 구성원들은 공감적인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이론(SIT)에 기반하여 자신의 업무를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⁶⁶⁾.

62)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63)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64)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65)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66) Mael, F., &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03-123.

현재까지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영학 조직행동 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이루어져왔고, 고성훈·문태원(2012)⁶⁷⁾의 연구에서는 공감이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고, 구소연·고성훈·문태원(2018)⁶⁸⁾의 연구에서는 공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고성훈·문태원(2013)⁶⁹⁾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선행변수로서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CSR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증하였고,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공감의 결과변수로서 이직의도⁷⁰⁾, 정서적 몰입⁷¹⁾, 직무성과⁷²⁾, 집단적 자긍심⁷³⁾ 등이 설정되어 공감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실증하였다.

조직 내 구성원들 관계에서 고통(suffering)에 반응하는 공감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은 Lilius et al.(2008)⁷⁴⁾의 실증적 연구에서 실증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긍정성을 느껴 자신의 업무관련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되므로 결국 이들은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체성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뀔에 따라 구성원들은 더욱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공감이 긍정적 업무관련정체성을 통하여 정서적 몰입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⁷⁵⁾.

-
- 67) 고성훈·문태원(2012). “공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3), 29-76.
- 68) 구소연·고성훈·문태원(2018). “오케스트라 조직 내에서 경험한 공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경영과 정보연구, 37(2), 43-62.
- 69) 고성훈·문태원(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감을 매개효과로”. 경영과 정보연구, 32(3), 189-220.
- 70) 고성훈·문태원(2012). “공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3), 29-76.
- 71) 오이라박경규·용현주(2013). “공감 (compassion) 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2), 41-74.
- 72) 구소연·고성훈·문태원(2018). “오케스트라 조직 내에서 경험한 공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경영과 정보연구, 37(2), 43-62.
- 73) 고성훈(2018).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공감이 집단적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의 매개효과와 조직 동일시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179-185.
- 74)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조직 내에서 공감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정서적 사건 이론(Affective Events Theory: AET)⁷⁶⁾에 기반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어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⁷⁷⁾.

정서적 사건 이론은 조직에서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과 정서가 조직 의행동과 효과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서적 사건 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그 원인 및 결과이다. 즉,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조직 환경 자체보다는 개별 사건(event)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시사해주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감적인 행위가 정서적 사건이 된다.

(2) 공감과 긍정적 감정의 관계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공감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Lilius et al.(2008)⁷⁸⁾은 고통에 반응하는 감정으로 공감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고무감과 안락함 같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시건 대학의 긍정조직학과(POS)의 연구자들 역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감이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⁷⁹⁾.

⁷⁵⁾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⁷⁶⁾ Weiss, H. M., & Cropanzano, R. (1996). Affective events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1), 1-74.

⁷⁷⁾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⁷⁸⁾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돌봄의 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이 업무성과 향상의 중요한 요소인데⁸⁰⁾, 동료와 부하직원, 상사의 관계에서 공감을 주고받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⁸¹⁾.

특히 조직 내에서 타인의 고통을 눈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공감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관계를 강화시켜주며, 구성원들이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⁸²⁾.

Bono & Ilies(2006)⁸³⁾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기분을 경험하도록 하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조직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이 발생했을 때, 동료, 부하직원, 상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⁸⁴⁾.

Weiss & Cropanzano(1996)⁸⁵⁾역시 직장 내에서 공감을 주고받는 행위는 중요한

79) Kanov, J. M., Maitlis, S., Worline, M. C., Dutton, J. E., Frost, P. J., & Lilius, J. M. (2004). Compassion in organizational lif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6), 808-827.

80) Ko, S. H., & Choi, Y. (2019). Compassion and job performance: Dual-paths through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collective self estee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stainability*, 11(23), 6766.

81) Ko, S. H., & Choi, Y. (2019). Compassion and job performance: Dual-paths through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collective self estee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stainability*, 11(23), 6766.

Dutton, J. E., Frost, P. J., Worline, M. C., Lilius, J. M., & Kanov, J. M. (2002). Leading in times of trauma. *Harvard business review*, 80(1), 54-61.

Hur, W. M., Moon, T., & Rhee, S. Y. (2016).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assion at work, the evaluative perspective of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service employee creativity,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30(1), 103-114.

Moon, T. W., Hur, W. M., Ko, S. H., Kim, J. W., & Yoo, D. K. (2016).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t work and employee outcomes.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26(1), 84-94.

82) Dutton, J. E., Frost, P. J., Worline, M. C., Lilius, J. M., & Kanov, J. M. (2002). Leading in times of trauma. *Harvard business review*, 80(1), 54-61.

83) Bono, J. E., & Ilies, R. (2006). Charisma, positive emotions and mood contagion. *The Leadership Quarterly*, 17(4), 317-334.

84)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정서적 사건이자 매력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다양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공감은 정서적 사건이론(Affective Event Theory)에 의하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있어 의미 있고, 매력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되며 이러한 공감은 동료, 부하직원, 상사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돌봄의 행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3)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의 관계

Lilius et al.(2008)⁸⁶⁾은 조직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감과 감정 사이에는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진정성을 가진 공감은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에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 심리상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행위는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공감은 구성원들에게 완충기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⁸⁷⁾,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조직구성원의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지자체 내에서 느린 학습자들에게 돌봄을 베풀고, 느린 학습자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공감적인 행위를 제공 할 때 이들 역시 고양시로부터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고통에 기반하여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는 공감은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돌봄의 형태로 경험되게 되며⁸⁸⁾, 느린 학습자들이 공감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감정도 경험하게

85) Weiss, H. M., & Cropanzano, R. (1996). Affective events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1), 1-74.

86)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87) Cameron, K., & Dutton, J. (Eds.). (2003).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Berrett-Koehler Publishers.

88)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된다. 느린 학습자들이 고양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Weiss & Cropanzano(1996)⁸⁹⁾이 주장한 정서적 사건이론(AET)에 기반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결국 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Ashforth & Mael(1989)⁹⁰⁾은 조직 환경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조직 동일시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과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고양시 지자체 내에서 느린 학습자들이 공감적인 돌봄 행위를 통하여 형성한 긍정적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SIT)에 기반 하여 조직 동일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조직 동일시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

조직 동일시는 개인이 어떤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 조직에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조직의 관점에서 규명하여 조직과 하나가 되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⁹¹⁾. 이처럼 조직 동일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조직에 대한 의미부여, 조직과 자신과의 관련성 설정, 조직효율성 추구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 개인의 조직행동(organizational behavior)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⁹²⁾.

강한 조직 동일시는 조직에서 조직 내 협력(intra organizational cooperation)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조직 동일시 정도가 약하거나 동일시되지 못한 개인은 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과 관념을 갖게 됨으로써 작업능률(operation efficiency) 저하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stress)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9) Weiss, H. M., & Cropanzano, R. (1996). Affective events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1), 1-74.

90)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91) Mael, F., &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03-123.

92) Smidts, A., Pruyn, A. T. H., & Van Riel, C. B. (2001). The impact of employee communication and perceived external prestige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5), 1051-1062.

한편 Allen & Meyer(1990)⁹³⁾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유형화 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애착감과 일체감을 느낌으로서 조직과의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형태이다⁹⁴⁾.

따라서 고양시 느린 학습자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돌봄의 행위들을 제공받았을 때 이들은 고양시 조직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애착심과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공감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정서적 사건 이론은 조직에서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과 정서가 조직 행동 및 효과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정서적 사건 이론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그 원인 및 결과에 초점을 둔다.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조직 환경 자체보다는 개별 사건(event)으로 보며, 이 사건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중요한 일임을 의미한다. 직업현장에서 겪게 되는 일상 혹은 고충들이 감정의 고조로 이어지게 될 때 이러한 경험들이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 시키게 되고, 그 결과 구성원의 직무 만족이나 직무몰입, 직무태도 측면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끌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⁹⁵⁾.

즉, 감정이 구성원의 태도형성이나 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곧 조직 내 생활에서 감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정서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⁹⁶⁾. 직장에서 경험하는 공감과 구성원의 긍정적인 감정 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93)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94) Mathieu, J. E., & Zajac, D. M. (1990).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8(2), 171-194.

95) 홍계훈·윤정구(2013). “조직공정성과 회사의 심리적 계약위반의 인식이 조직몰입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안모델의 탐색”.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1), 59-85.

결과가 있으며⁹⁷⁾, 구성원이 공감을 경험하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교류가 증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⁹⁸⁾. 공감은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타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도록 도와 준다⁹⁹⁾.

공감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다 인간적으로 바꾸며¹⁰⁰⁾,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업무와 조직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¹⁰¹⁾. 또한 대인관계에서 진정어린 공감을 자주 경험한 구성원들은 공감적인 사건과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돌봄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써 간주하게 된다¹⁰²⁾.

따라서 고양시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인간적인 진실함이 담긴 공감을 경험한 느린

⁹⁶⁾ Weiss, H. M., & Cropanzano, R. (1996). Affective events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1), 1-74.

⁹⁷⁾ Dutton, J. E.(2003). *Energize your workplace: How to build and sustain high-quality connections 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Frost, P. J.(2003). *Toxic emotions at work: How compassionate managers handle pain and conflict*.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Hallowell, E. M.(1999). The human moment a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7, 58-66.

Kahn, W. A.(1993). Caring for the caregivers: Patterns of organizational caregiv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539-563.

Kahn, W. A.(1998). Relational systems at work. In B. M. Staw, & L. L. Cummings(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0, 39-76. New York: Elsevier Science.

⁹⁸⁾ Dutton, J. E.(2003). *Energize your workplace: How to build and sustain high-quality connections 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Miller, J. B., & Stiver, I. P.(1997), *The healing connection: How women form relationships in therapy and life*. Boston, MA: Beacon Press.

⁹⁹⁾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376.

¹⁰⁰⁾ Clark, C.(1997), *Misery and company: Sympathy in everyday lif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¹⁰¹⁾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¹⁰²⁾ Kahn, W. A.(1993). Caring for the caregivers: Patterns of organizational caregiv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539-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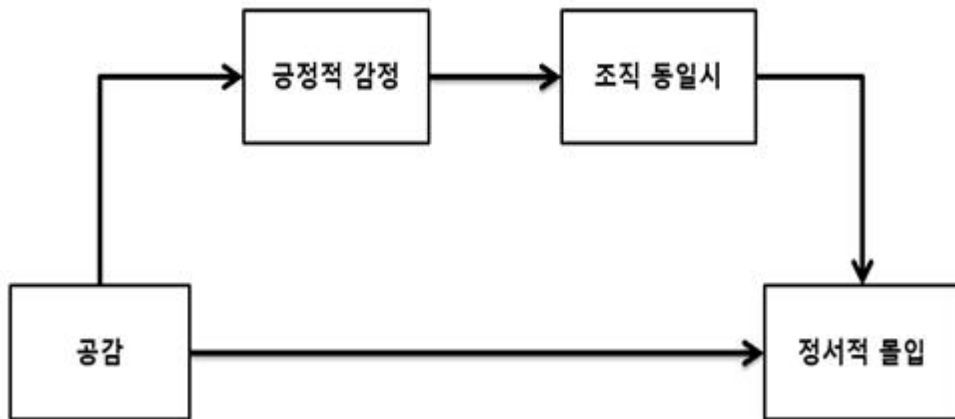
학습자들은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 및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지원을 통한 돌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고양시 조직을 사회적지원과 치유의 원천으로 여기게 된다¹⁰³⁾.

2)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아래는 느린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공감의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를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이다.

[그림 4-16] 연구모형



본 연구는 느린 학습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험하는 공감이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를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공감이 긍정적 감정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 이중매개를 통하여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위와 같다.

¹⁰³⁾ Frost, P. J.(2003). Toxic emotions at work: How compassionate managers handle pain and conflict.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2) 가설

가설1. 지방자치 단체가 느린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공감적 돌봄의 행위들은 긍정적 감정에 정(+)¹⁰⁴⁾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2. 느린 학습자들이 느낀 긍정적 감정은 조직 동일시에 정(+)¹⁰⁴⁾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3. 느린 학습자들이 형성한 조직 동일시는 정서적 몰입에 정(+)¹⁰⁴⁾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4. 지방자치 단체가 느린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공감적 돌봄의 행위들은 정서적 몰입에 정(+)¹⁰⁴⁾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5. 느린 학습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경험한 공감적 돌봄의 행위는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를 이중 매개로 하여 정서적 몰입에 정(+)¹⁰⁴⁾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느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표본의 조사는 2022년 6월 중순부터 2022년 7월 초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최종적으로 고양시 느린 학습자 252명의 표본을 실증적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① 공감(compassion)

본 연구에서는 공감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조직 내에서 타인의 고통에 돌봄의 행위로 반응하는 감정’¹⁰⁴⁾으로 내리고자 한다. 공감의 척도로는 Lilius et al.(2008)¹⁰⁴⁾이 개발

¹⁰⁴⁾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한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구성원들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다. 각 항목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공감의 Cronbach’s alpha는 $\alpha=.907$ 이다.

②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조직 내에서 타인의 돌봄의 행위로 인해 기쁨과 위로의 느낌을 경험하는 감정’으로 내리고자 한다. 긍정적 감정의 척도로는 Lilius et al.(2008)¹⁰⁵⁾이 개발한 4개의 항목을 사용하였음. 문항의 예는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나는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나의 요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다. 각 항목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긍정적 감정의 Cronbach’s alpha는 $\alpha=.872$ 이다.

③ 조직 동일시(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조직 동일시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조직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과 ‘하나(oneness)’가 되고,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and Behavior, 29(2), 193-218.

¹⁰⁵⁾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정의하고자 한다. 조직 동일시 척도는 Mael & Ashforth(1992)¹⁰⁶⁾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가지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문항의 예는 '나는 국민들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들으면 개인적인 칭찬을 받은 느낌이 든다.', '나는 대중 매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나는 국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비난하면 내가 개인적 모욕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국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등이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6이고,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④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suffering)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베푸는 도움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의 정도'로 내리고자 한다. 정서적 몰입의 척도로는 Allen & Meyer(1990)¹⁰⁷⁾이 개발한 5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이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지곤 한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을 외부사람들에게 언급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의 일이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곤 한다.' 이다. 각 항목들은 Likert식 5점

¹⁰⁶⁾ Mael, F., &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03-123.

¹⁰⁷⁾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척도로 측정하였고, 정서적 몰입의 Cronbach's alpha는 $\alpha=.930$ 이다.

4)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① 확인적 요인분석(CFA)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법(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 알파값을 산출하였음. 모든 변인들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전통적으로 추천되는 0.7을 넘었고, 평균분산 추출값 역시 0.6을 넘어 전통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A결과 $X^2(107) = 203.029, p < .001$ 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인들의 측정 문항들은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전통적 기준을 만족시켰다. 아래 [표 4-1] 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수치들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치라고 판단된다¹⁰⁸⁾.

[표 4-3] 확인적 요인분석

Construct	Items	λ	SE	CR	α	AVE	CR
공감	Compassion1	.647	-	-	.907	.677	.825
	Compassion2	.694	.157	7.435			
	Compassion3	.645	.153	7.254			
긍정적 감정	PE1	.435	-	-	.872	.693	.825
	PE3	.363	.215	4.087			
	PE4	.528	.286	4.584			
조직동일시	O11	.385	-	-	.896	.643	.810
	O12	.508	.323	4.523			
	O13	.385	.252	3.936			
	O14	.499	.307	4.471			

¹⁰⁸⁾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OI5	.373	.281	3.864			
	OI6	.485	.284	4.416			
정서적 몰입	AC1	.420	-	-	.930	.667	.808
	AC2	.483	.216	4.685			
	AC3	.494	.244	4.738			
	AC4	.387	.217	3.999			
	AC5	.362	.206	3.922			
$\chi^2 (107) = 203.029(p=.000)$, CFI= .917, TLI= .919, NFI= .949, IFI= .903, RMSEA= .040, RMR= .051							

②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가설검증 전에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였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VIF가 나타내는 수치가 1.012 ~ 1.194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4] 상관관계 분석

	1	2	3	4
1. 공감	.823			
2. 긍정적 감정	.328**	.833		
3. 조직 동일시	.400**	.415**	.802	
4. 정서적 몰입	.247**	.443**	.498**	.817
Mean	3.399	3.639	3.568	3.592
SD	.834	.596	.546	.574
Max	5	5	5	5
Min	1	1	1	1

Note : **p < .01, The number in the diagonal is the square root of the AVE

③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CFA(확인적 요인분석) 후 항목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요인 부하량(λ)이 매우 낮은 항목들을 묶은 후 최종적으로 공감 3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 조직 동일시 6문항, 정서적 몰입 5문항을 선택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은 모두 지지가 되었고, 가설 검증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5] 경로분석

H	Path	b	SE	CR	P	Test
H1	공감 → 긍정적 감정	.235	.043	5.508	$p < .001$	Accept
H2	긍정적 감정 → 조직 동일시	.380	.053	7.216	$p < .001$	Accept
H3	조직 동일시 → 정서적 몰입	.266	.038	5.720	$p < .01$	Accept
H4	공감 → 정서적 몰입	.399	.060	6.615	$p < .001$	Accept

④ 이중매개효과 가설검증

사회과학 분야에서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mediator)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그동안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¹⁰⁹⁾.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논문에서 사용되어 왔다¹¹⁰⁾.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중매개(multiple mediation) 또는 이중매개(double mediation)모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¹⁰⁹⁾ MacKinnon, D. P., Coxé, S., & Baraldi, A. N. (2012).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mediating variables in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1), 1-14.

¹¹⁰⁾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왔다¹¹¹⁾).

이와 같은 기존의 매개효과 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가장 많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개효과 분석 방법이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Process방법이다. Bootstrapping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CI95%=LLCI value, ULCI value). 아래 매개효과가 검증결과에서 보듯이 Bootstrapping을 이용한 공감과 정서적 몰입 간의 간접효과는 $LLCI_{95} = .006$, $ULCI_{95} = .055$ 로 0(제로)가 95% CI[.006, .055]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가설5>는 지지되었다.

[표 4-6] 이중매개효과 분석

	Effect	LLCI95%	ULCI95%	BootSE
Total indirect effect	.169	.079	.259	.046
공감 → 긍정적 감정 → 정서적 몰입	.064	.023	.116	.024
공감 → 조직 동일시 → 정서적 몰입	.077	.026	.136	.028
공감 → 긍정적 감정 → 조직 동일시 → 정서적 몰입	.027	.006	.055	.012

2.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 청년층을 표본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 가설검증 및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가설은 지지가 되었고,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공감

¹¹¹⁾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적 행위는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적 행위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되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만큼 향후 고양시가 제공하는 공감적 행위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의 척도를 개발한 Lilius et al.(2008)¹¹²⁾의 연구와는 다르게 공감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적 감정과 조직 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는데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국의 긍정조직학과(POS)들이 연구해왔던 공감에 관한 질적·양적 연구들¹¹³⁾과는 차별적으로 공감, 긍정적 감정, 조직 동일시,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실증했다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실천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고양시로부터 돌봄적 행위를 제공받는 느린 학습자 청년층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돌봄의 행위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향후 고양시에 대한 긍정심리 자본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고양시에 대한 공감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고양시로부터 공감적 돌봄의 행위를 제공받은 느린 학습자 청년층들은 고양시의 공감적 행위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면서 공감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¹¹²⁾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¹¹³⁾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셋째, 본 연구는 고양시에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고양시가 느린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감적인 행위는 각각의 구성원들을 객체(objectivity)가 아닌 인격적인 주체(subjectivity)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고양시로부터 돌봄의 행위를 제공받은 느린 학습자들과 보호자들은 고양시민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받은 공감적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고양시 내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적 행위를 주고받으면서 관계의 질(HQC : High Quality Connection)을 향상시키게 되고, 그 결과 고양시는 점차적으로 긍정적 문화를 더욱 구축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제 5 장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안 제안

제1절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제2절 교육지원

제3절 취업지원

제4절 건강·복지·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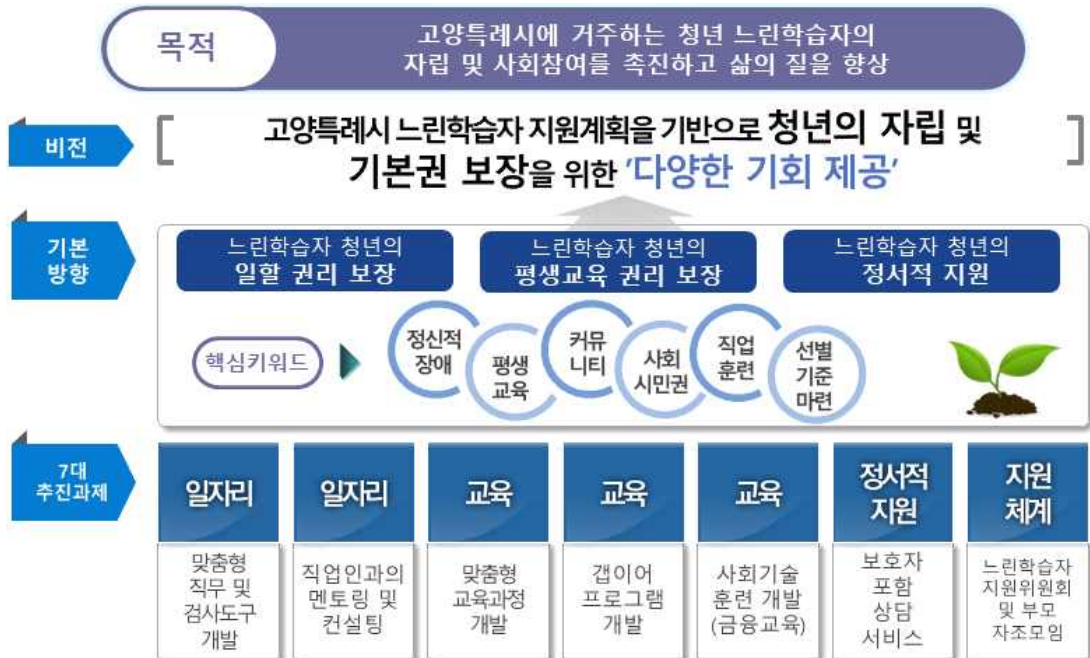
제5절 지원체계 구축

제절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1. 비전 및 추진과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욕구 및 수요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기반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의 비전 및 7대 추진과제는 [그림 5-1]과 같다. 기본방향의 경우 느린학습자 청년의 일할 권리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서적 지원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느린학습자 관련 업무를 청년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본 과제를 추진하려면 부서 간 면밀한 협업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5-1] 비전 및 추진과제



예를 들어 일자리 분야 과제의 경우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로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정서적 지원의 경우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가 종합의견

느린학습자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전문가 8명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중장기 정책 수립과 목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표 5-1]과 같다. 느린학습자의 경우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청년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커뮤니티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 직업훈련기관 설립, 느린학습자 선별을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아기 청소년기보다 청년기 부모들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표 5-1] 중장기 정책 목표 수립과 방향 설정 관련 전문가 종합의견

키워드	전문가 의견
정신적 장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장애인들과 겹치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필요, 정서적 지지 필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공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높음
커뮤니티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린학습자 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 기회 제공
자립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자립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립
사회시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권 보장과 자립방안을 통한 청년 느린학습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사회시민권)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 가능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느린학습자를 조기 발견 및 대응 모든 느린학습자의 사회 평균 잠재력 개발 평생교육을 통한 느린학습자 역량 강화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원, 직업 맞춤 훈련센터 등 직업 훈련 기관을 개설
선별기준 방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내 거주하는 청년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선별기준방침을 만들어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청년 느린학습자를 위한 배움 카드 발급 제도를 시행함

제2절 취업지원

1. 맞춤형 직무 및 검사도구 개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느린학습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달장애에 비해 훨씬 일자리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집단인 동시에 기존 영역에서는 정책지원유무로 인해 발달장애인 대비 취업의 기회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에 기업에서 전문(고등)인력들의 기초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무 개발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예를들어 데이터매니저, 사무행정보조원, 원예교육보조교사, 간병보조원 등 농업, 가공, 서비스, IT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

느린학습자의 경우 지능 검사 상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어 장애고용에도 일반고용에도 들어갈 수 없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들에게 직업장애 등급을 허용하여 기업의 협조가 적극 이뤄질 수 있는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고양시의 경우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에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한다면 느린학습자들에게 공공 일자리 사업을 주기적이고 꾸준하게 제공됨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을 느린학습자를 고양시 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 및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2022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2년, 경기지역화폐 최대 480만원/분기별 지급, 5월과 10월 모집 9천 명 목표), 경기도일자리재단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운영(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분기별 지급, 6월, 8월, 11월 모집 연간 3만 명 목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면접 1회 5만 원/지역화폐, 최대 6회 지원)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현재 느린학습자들은 직무 및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지 개발을 고려해볼만 하다. 본 과제의 경우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로 구성

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직업인과의 멘토링 및 컨설팅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기호와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을 느린학습자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정할 수 없다. 고양시 청년 설문 결과, 언어사고력 향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업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접촉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학습자가 만나길 희망하는 직업인을 통해 해당 분야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문가 종합의견

느린학습자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전문가 8명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취업지원에 관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표 5-2]과 같다.

[표 5-2] 취업·노동·일자리 지원 측면전문가 종합의견

키워드	전문가 의견
지원 수혜경험 유무 구분 및 식별	기관, 센터, 커뮤니티 경험이 있는 청년 느린학습자들과 경험이 없는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취업·노동·일자리 지원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함
제도적 지원 (직업장애 등급)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에서 느린학습자를 고용할 때, 경기도에서 기업의 제세 효과를 제공하여 지속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발달장애 지원정책 벤치마크	일자리 현장에서는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의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행사례인 발달장애 관련 지원정책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
고양시 청년정책 연계	고양시 청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멘토링과 컨설팅	학습자가 만나길 희망하는 직업인을 통해 해당 분야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
맞춤형 직무 개발	기업에서 전문(고등)인력들의 기초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전문(고등)인력들의 일과 시간의 효율성을 꺾고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음
직업능력검사 도구 개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별도의 직업능력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자신의 역량과 강점에 맞는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도모함 (현재 느린학습자들은 직업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검사지 자체가 없음)

제3절 교육지원

1.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평생교육 6대 영역인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을 통해 느린학습자 역시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해야 하며, 평생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은 ‘맞춤 교과서 개발’이 123명(48.8%)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전문교사 양성’ 90명(35.7%), ‘학교 교사연수 의무화’ 83명(3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 수혜가 가능하지만 청년기의 경우 일반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대학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갭이어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사회성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에 갭이어(Gap Year) 개념을 활용하여 느린학습자 이외의 비진학이나 갭이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을 참여하는 보다 넓은 과정으로 운영하고 그중 한 부분을 느린학습자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느린학습자 청년의 고유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들은 전문성,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 내성에 중점을 둔 멘토링 및 유급 인턴쉽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기술 훈련 개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동수단 이용법, 급여관리 및 용돈관리, 자산관리, 취사방법 및 안전교육 등의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자립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느린학습자의 경우 제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제한된 학습시간에 학습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제도권 교육 체제에 학생이 적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과정을 개설하고 학습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므로 개인 수준 맞춤 학습은 어려운 것이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이에 학습자 진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소수 학습자로 구성해야 하고 최근 클래스101, 숨은고수, 탈잉 등 분야별 지식과 역량을 유료로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이 활성화되었기에 지자체에서 청년 느린학습자 과정을 기획하기보다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자를 시장에서 연결하는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맞춤 자율 학습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전문가 종합의견

느린학습자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전문가 8명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교육지원에 관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교육지원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키워드	전문가 의견
평생교육 6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을 통해 느린학습자 역시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 획득
취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기술 및 취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시간 준수 등의 교육 및 확인 필요
갭 이어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갭이어 개념을 활용하여 느린학습자 이외의 비진학이나 관심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을 참여하는 보다 넓은 과정으로 운영하고 그중 한 부분을 느린학습자에 할당 • 고양시 내 평생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청년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 역량 및 직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느린학습자 대상 갭 이어 프로그램을 운영
민간 교육 플랫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클래스101, 숨은고수, 탈잉 등 분야별 지식과 역량을 유료로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청년 느린학습자 과정을 기획하기보다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자를 시장에서 연결하는 맞춤형 자율 학습을 검토
금융교육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훈련 교재 개발 • 맞춤형 화폐 교육 교재 개발 •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또는 취미개발을 통해 여가 활동 및 능력 개발 기회 마련

제4절 건강·복지·상담 지원

1. 보호자·느린학습자 상담서비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느린학습자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자녀 양육상담’이 100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 심리정서 지원’ 73명(29.0%), ‘가족 교육’ 71명(28.2%), ‘부모 심리상담’ 69명(27.4%), ‘부모 자조모임’ 63명(25.0%), ‘가족갈등 해소 프로그램’ 39명(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느린학습자와 부모 간 갈등정도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호자 또한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103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90명(35.7%), ‘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 공론장’ 81명(32.1%), ‘지원조직 설립’ 77명(30.6%), ‘마을기반 생태 환경 구축’ 58명(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느린학습자 네트워크 구축과 상담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어 갈등 해소 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는 중학생때부터 서서히 드러나지 않고 가정으로 숨는 경향이 나타나고 청년기 느린학습자를 위한 정책이 청년기에 국한되면 오히려 적절한 정책대상을 발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소년기 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지원과 연결이 있어야 이들이 자연스럽게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느린 학습자 당사자는 지원계획을 통해 상담, 복지, 건강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될 수 있지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을 예를 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건강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못지 않게 보호자 역시 정신적 측면, 신체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청년

느린학습자 보호자들의 의견에서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신체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상술한 부문에 대해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전문가 종합의견

느린학습자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전문가 8명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건강·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표 5-4]과 같다.

[표 5-4] 건강·복지·상담 지원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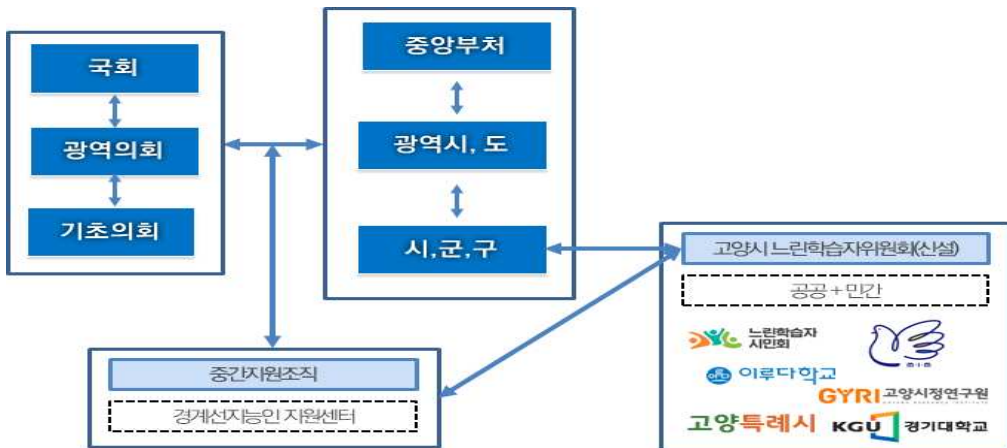
키워드	전문가 의견
낮은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느린학습자들은 주변인들의 시선과 태도에 매우 민감 •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는 경우도 보임
지역사회보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지원 포함
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측면으로의 치료지원 필요 및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이용이 필요함 • 집단상담 필요 • 보호자의 상담서비스 지원 필요 • 느린학습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를 마련(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불만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지원) • 콜센터를 운영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나 그 외 개인 및 가족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구축
기존 청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에서 건강검진, 마음돌봄 등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참여가 저조한 현실

제5절 지원체계 구축

1.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

느린학습자는 일반학생들보다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칭 고양시 느린학습자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현재 미흡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기존 정책과의 연계방안, 느린학습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적 현안에 대해 향후 중앙부처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조작적 정의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고양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느린학습자위원회’를 신설하여 입법 및 지원정책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느린학습자시민회, 이루다학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과 교육을 위한 지역거점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2] 고양시 느린학습자 거버넌스 체계



2. 전문가 종합의견

느린학습자 및 소외계층 복지분야 전문가 8명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 지원체계 구축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표 5-5]과 같다.

[표 5-5] 지원체계 구축 측면 전문가 종합의견

키워드	전문가 의견
기존 네트워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청년포털 활용 고양시의 경우 4개 공동체(생각을담다, 펀디인, 거북이, 아이앤조이 프로덕션) 활용
기관 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다양한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관 간의 역할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호간의 사회적 이익(편익) 향유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기에서 교사란 제도권 교육 교사만 아니라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별 평생교육 과정 교강사 모두를 포함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느린학습자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및 공공 행사에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여 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 및 홍보
단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느린학습자 단체 운영(현재 고양시에 이루다학교에서 주최한 “슬론(SLON)”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느린학습자청년들의 동아리 지원사업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여 지원사업 대상자의 영역을 형평성 있도록 개선함 (실제로 청년대상 지원사업 신청 시 느린학습자 청년들은 제외된 사례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 고성훈(2018).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컴페션이 집단적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업무관련 정체성의 매개효과와 조직 동일시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179-185.
- 고성훈(2018). “조직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컴페션과 긍정 리더십 이 집단적 자긍심과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조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전문경영인연구, 21(4), 39-59.
- 고성훈·문태원(2012). “공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3), 29-76.
- 고성훈·문태원(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컴페션을 매개효과로”. 경영과 정보연구, 32(3), 189-220.
- 구소연·고성훈·문태원(2018). “오케스트라 조직 내에서 경험한 컴페션이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경영과 정보연구, 37(2), 43-62.
- 김동일·이연재·한은혜·안여지(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1), 25-53.
- 김은자·황민아·고선희(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정의제시 조건과 문맥제시 조건에 따른 비단어 의미 추론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1(2), 262-270.
- 김진아(2017).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장애연구 14(3), 157-184.
- 김태은(2020),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노원경·김태은·오상철·강옥려(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교육연구논총, 41(4), 143-171.
- 류은진·옥정(2021).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10(2), 217-242.

- 류인혜(2020). “국내 경계선 지적지능 학생의 언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65-95.
- 박숙자(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Giorgi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 1-17.
- 박은미·임성미(2021). “학교적용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행기능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2(4), 23-47.
- 박찬선·장세희(2018).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 박현숙·최현기(2014).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이드북”.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변관석·신진숙(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 체계연구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 기초연구보고 공론장 자료집.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서해정·박현숙·이혜수(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신수아(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상우·오미영·김선희(2011).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4판(K-WISC-IV)에서의 성차.”
재활심리연구, 18(3), 361-373.
- 오아라·박경규·용현주(2013). “공감 (compassion) 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2), 41-74.
- 오현숙(2001). “경계선지능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8(1),
197-227.
- 유경·정은화·김택형(2007). “학령기 경계선지능 아동의 언어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93-209.

- 이새별·강옥려(2020).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작업기억 특성 분석. 학습장애연구”, 17(2), 1-27.
- 이정혜(2021). “자해성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박사학위 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 이준석(2016). “K-WISC-IV 지표와 전체 IQ 신뢰도에 미치는 보충소검사 대체의 영향.” 재활심리연구, 23(4), 803-814.
- 임희진·구자경(2019).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독서치료연구, 11(1), 63-84.
- 장세희(2018). “독서치료가 느린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0(2), 89-106.
- 정문순(2004). “미술치료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정하나·유선미·김지연·임행정·정혜경·허성희(202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사회성」, 이담북스.
- 정희정·이재연(2005).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 아동복지연구, 3(3), 109-124.
- 정희정·이재연(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최윤정·이시연(2007). “한부모 가족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5(1), 123-142.
- 최인경(2020). “게임 중재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인지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1(1), 107-128.
- 하정숙·김자경(2017). “느린 학습자의 읽기를 위한 다각적인 중재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136-155.
- 한동욱·조혜선·황순택·김지혜·홍상환(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척도의 개발”. 초등상담연구, 20(2), 153-168.
- 허은(2022).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187-200.
- 홍경숙(2021). “미숙아로 출생 후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경험”. 인문사회 21, 12(2), 1755-1770.
- 홍계훈·윤정구(2013). “조직공정성과 회사의 심리적 계약위반의 인식이 조직몰입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안모델의 탐색”.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1), 59-85.

[국외문헌]

-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Bono, J. E., & Ilies, R. (2006). Charisma, positive emotions and mood contagion. *The Leadership Quarterly*, 17(4), 317-334.
- Cameron, K., & Dutton, J. (Eds.). (2003).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Berrett-Koehler Publishers.
- Chauhan, S. (2011). Slow learners: their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1(8), 279-289.
- Clark, C. (1997). *Misery and company: Sympathy in everyday lif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tton, J. E. (2003). *Energize your workplace: How to build and sustain high-quality connections 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Dutton, J. E., Frost, P. J., Worline, M. C., Lilius, J. M., & Kanov, J. M. (2002). Leading in times of trauma. *Harvard business review*, 80(1), 54-61.
- Dutton, J. E., Roberts, L. M., & Bednar, J. (2010). Pathways for positive identity construction at work: Four types of positive identity and the building of social resour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5(2), 265-293.
- Folkman, S., & Lazarus, R. S. (1991). 10. Coping and Emotion. In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207-227). Columbia University Press.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376.
- Frost, P. J.(2003). *Toxic emotions at work: How compassionate managers handle pain and conflict*.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allowell, E. M.(1999). The human moment a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7, 58–66.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ur, W. M., Moon, T., & Rhee, S. Y. (2016).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assion at work, the evaluative perspective of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service employee creativity,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30(1), 103–114.
- Kahn, W. A.(1993). Caring for the caregivers: Patterns of organizational caregiv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539–563.
- Kahn, W. A.(1998). Relational systems at work. In B. M. Staw, & L. L. Cummings(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 Vol. 20, 39–76. New York: Elsevier Science.
- Kanov, J. M., Maitlis, S., Worline, M. C., Dutton, J. E., Frost, P. J., & Lilius, J. M. (2004). Compassion in organizational lif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6), 808–827.
- Ko, S. H., & Choi, Y. (2019). Compassion and job performance: Dual-paths through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collective self estee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stainability*, 11(23), 6766.
- Lilius, J. M., Worline, M. C., Maitlis, S., Kanov, J., Dutton, J. E., & Frost, P. (2008). The

-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compassion at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9(2), 193–218.
- MacKinnon, D. P., Coxé, S., & Baraldi, A. N. (2012).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mediating variables in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1), 1–14.
- Mael, F., &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03–123.
- Mathieu, J. E., & Zajac, D. M. (1990).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8(2), 171–194.
- Miller, J. B., & Stiver, I. P. (1997). *The healing connection: How women form relationships in therapy and life*. Boston, MA: Beacon Press.
- Moon, T. W., Hur, W. M., Ko, S. H., Kim, J. W., & Yoo, D. K. (2016).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t work and employee outcomes.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26(1), 84–94.
- O'Connor, K. J., & Ammen, S. (2012). *Play therapy treatment planning and interventions: The ecosystemic model and workbook*. Academic Press.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midts, A., Pruyn, A. T. H., & Van Riel, C. B. (2001). The impact of employee

communication and perceived external prestige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5), 1051-1062.

Weiss, H. M., & Cropanzano, R. (1996). Affective events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1), 1-74.

静岡県発達障害者支援体制整備検討委員会(2016).

静岡県における今後の発達障害者支援の在り方(시즈오카 현 발달 장애인 지원
체제 정비 검토위원회 (2016). 시즈오카 현의 향후 발달 장애인 지원의 존재 방식)

부 록

[부록 1] 느린학습자 청년 설문지

2022년 고양시 청년 및 청소년(고등학생) 느린학습자 욕구 및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고양시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사용될 설문지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저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끝까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으로 일괄 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설계는 느린학습자의 보호자(응답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느린학습자 청년의 경우 본인이 보호자와 함께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설문응답 대상자(느린학습자)는 만 18세 ~ 만 39세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 마지막 문항에 휴대폰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소정의 쿠폰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 김종성 교수

2022년 6월

I.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욕구 및 수요조사 문항

응답자(보호자) = 응답대상자를 대신하여 설문을 응답한 사람

응답대상자 = 설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느린학습자 청년), 만 18세 ~ 만 39세

1. 응답자와 응답대상자(느린학습자 청년 혹은 청소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느린학습자 청년' 본인이 답변하셨다면 3번 보기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 ① 부 ② 모 ③ 응답자 본인 ④ 형제자매 ⑤ 기타

2. 응답자(보호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3. 응답자(보호자)의 연령은?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4. 느린학습자를 돌보는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50만원 미만 ③ 50~70만원 미만 ④ 70~100만원 미만
⑤ 100~150만원 미만 ⑥ 150~200만원 미만 ⑦ 200만원 이상

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가족 총 구성원이 소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시간, 아버지가 2시간 소요하였다면 총 3시간이 됩니다.

- ① 30분~1시간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4시간
⑤ 4시간 이상 ⑥ 학습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7.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미취학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
- ② 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종합심리검사
- ③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 ④ 진단에 따른 비용 지원
- ⑤ 종합지원센터 설립
- ⑥ 기타

8.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학교
- ② 바우처 교육지원
- ③ 사교육
- ④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 ⑤ 자조모임 (사회생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 ⑥ 기타

9.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서비스별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5개)

- ① 기초학습
- ② 학년교과학습
- ③ 언어사고력 향상
- ④ 인지사고력 향상
- ⑤ 직업능력 향상
- ⑥ 특수체육
- ⑦ 예체능 교육
- ⑧ 심리 정서
- ⑨ 사회성 향상
- ⑩ 사회 적응 향상
- ⑪ 또래 협력 프로젝트
- ⑫ 성교육
- ⑬ 맞춤형 정보화 교육
- ⑭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 ⑮ 맞춤형 직업 훈련
- ⑯ 맞춤형 방과후교실

10.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전문교사 양성
- ② 맞춤 교과서 개발
- ③ 학교 교사연수 의무화,
- ④ 맞춤형
- ⑥ 기타

--

II. 다음은 귀하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를 받았을 때 느끼는 컴패션(공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compassion) :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suffering)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감정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구성원들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귀하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를 받았을 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suffering)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베푸는 도움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위로감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나의 요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귀하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를 받았을 때 느끼는 조직 동일시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동일시(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 느린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사회구성원들과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는 정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국민들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들으면 개인적인 칭찬을 받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말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중 매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국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비난하면 내가 개인적 모욕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국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를 받았을 때 느끼는 진정성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suffering)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베푸는 도움에 대해 느끼는 진실성의 정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공감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공감적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난 행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공감적 행위는 일반적 수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공감적 행위가 진실성 있는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공감적 행위에 대해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귀하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돌봄의 행위를 받았을 때 느끼는 정서적 몰입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몰입 : 느린 학습자들이 어려움(suffering)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베푸는 도움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의 정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이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을 외부사람들에게 언급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이들의 일이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공감적 행위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 응답대상자를 대신하여 설문을 응답한 사람(보호자)

응답대상자 = 설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느린학습자 청년)

1. 응답대상자(청년)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응답대상자(청년)의 연령은?
① 만 18세~만 22세 ② 만 22세~만 26세 ③ 만 27세~만 31세
④ 만 32세~만 36세 ⑤ 만 37세~만 39세
3. 응답대상자(청년)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4. 응답대상자(청년)의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4년 ② 5~9년 ③ 10~14년 ④ 15~19년 ⑤ 무직
5. 응답대상자(청년)의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년제 대학교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Shin Hee Yun*, Jongsung Kim**, Hyun Chul Kang***, Sung-Hoon Ko****, Sae Hoon Lee*****

Goyang-si has established and proclaimed the ordinance in November 2021 to guarantee the right of living for young slow learners and support their self-reliance as their wellbeing remains a blind sp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the support plans to support them based on factual survey targeting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in a bid to find legal basis. Research methodology could be divided into literature research, empirical study, expert advices, and word clouds. Literature research allows to theoretically review slow learners and previous studies. Also, the experts' advices are collected in the meeting as a expert conference to gather data for building the support plans for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For the empirical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d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are conducted.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on the desire and demands of young slow learners in Goyang-si, experts' advices and outcomes from debates show came up with visions and 7 projects for the support plans for slow learners as follows; develop customized jobs and test tools, mentoring and consulting for dream job,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cess, develop gap year programs,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orea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orea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orea

***** Researcher, Kyonggi University, Korea

develop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consulting service with guardians, and committee for slow learners assistance and parents self-help group. Basically it's required to guarantee the right for young slow learners to work and get lifelong education and continuously provide emotional support. Currently, the Youth Support Department has been in charge of slow learners-related matters in Goyang-si and aforementioned projects need cross-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xample, the employment issues require active cooperation from 'the Employment Affairs Bureau' where consists of the Division of Employment, Division of Enterprise Support, Divis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Division of Strategic Industries. For the education issues, the Divis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Division of Welfare Policy, Division of Outreach Welfare Service, Division of Handicapped Welfare, and Division of Child and Youth from the Welfare and Women Bureau especially for emotional support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